

파트너의 꿈과 맘, 카카오가 있다

kakao

partners

Volume

06

2018. 05



#세네동어린이집 #글피
#꿈들 #Kakao클래스
#어린이프로젝트 #메이커교육
#카카오미니 #어떤버스

with kakao

partners



COVER STORY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6호 표지에 담긴 장면은 책읽기 수업이 한창인 서울 노원구의 세네동 어린이집이다. 세네동 어린이집은 카카오의 스마트 알립장 서비스인 키즈노트를 시범 운영 단계부터 도입해 애용하고 있다. 키즈노트가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with kakao



카카오 덕분에 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찾았고



튼튼한 울타리를 얻었으며

무모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어요



Mason’s talk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특별한 날들로
꽤 찬 5월입니다. 이번 호 〈Partners with Kakao〉는 5월의 주인공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특히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네동 어린이집’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인 키즈노트를 사용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 아이,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온 가족의 관계까지 한결
긴밀해졌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뚝뚝 뭉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제주교대 학생들이 청춘을 바쳐 만든 교육 성장 네트워크 ‘꿈들’의 ‘푸른
꿈 작은 공부방’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년간 이어진 공부방은
지난해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스토리펀딩 프로젝트로
충당했습니다. 목표 금액을 212%나 달성한 알짜배기 프로젝트에 담긴
허은지 선생님과 예비 교사 김상은 씨의 따뜻한 진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웹툰에서 〈풀 뜯어먹는 소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웹툰
팀 ‘글피’의 김주영·주태희 작가는 부부만이 발휘할 수 있는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두 작가는 판타지부터 미스터리 로맨스, 귀농
일상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웹툰을 연재하는 동안 다음웹툰이
든든한 친정 역할을 해줬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모두를 위한 연결’ 시리즈로는 영상통화 서비스인 카카오
페이스톡을 수화 언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천정우·김수란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청각장애 2급 농인인 두 분의 일상은
페이스톡 덕분에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같이가치 with Kakao의 모금함,
전국 학교에 3D 프린터를 제공함으로써 메이커(maker)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도 이번 호에서 만나보세요.

그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죄송한 부모님과 선생님,
투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편과 아내.
늘 곁에, 가까이 있기에 마음과는 달리 소홀해지기 쉬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호 카카오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계기로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5월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발행인 여민수

partners

spotlight	50년 역사의 어린이집, 디지털을 입다 세네동 어린이집	14
dialogue	부부가 함께 그리는 귀촌 라이프 글피	36
story	모두가 자라는 ‘푸른 꿈 작은 공부방’ 꿈들	44
party	프로젝트 성공 노하우 카카오가 코치합니다 Kakao 클래스	62

with kakao

series	너의 목소리가 보여 모두를 위한 연결	66
record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해 같이가치 with Kakao	76
	지금 학교는 만들기 공부 중 학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80
info	카카오미니, 일상 속으로 성큼 카카오미니	84

partners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호에는 카카오를 통해 효율과 신뢰를 끌어올린 파트너와 특별한 협업에 성공한 파트너,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파트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50년 역사의 어린이집, 디지털을 입다

부부가 함께 그리는 귀촌 라이프

모두가 자라는 ‘푸른 꿈 작은 공부방’

프로젝트 성공 노하우 카카오가 코치합니다

spotlight

50년 역사의 어린이집, 디지털을 입다

까만 눈동자들이 반짝거린다. 한없이 투명한 이 시선들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길게는 하루 12시간 공간 곳곳에 스며드는 세네동 어린이집. 만 0세부터 5세까지 75명의 아이들이 거의 종일 여기 머무른다. 아이들에게 처음 만나는 세상이자 제2의 가정인 곳.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에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보육의 전장(戰場)이 되고, 부모에게는 한없이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또 가끔은 불안한 장소가 된다. 아이를 아끼는 모두의 마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된 건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 '키즈노트'였다.

세네동 어린이집

'세네동'은 ▲ 세모 ■ 네모 ● 동그라미의 줄임말.
저마다 모양과 색이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이름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9길 10
형태: 서울형 민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학급: 11개 반

사랑반(만 0~1세): 3개 반
희망반(만 2세): 2개 반
지혜반(만 3세): 1개 반
슬기반(만 4세): 1개 반
기쁨반(만 5세): 1개 반

총 정원(현원): 95명(75명)
교직원: 12명

보육 목표: 지혜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역동적인 사람
키즈노트 정식 도입 시기: 2012년 1월 1일



(왼쪽부터)
곽현희 원장,
최남숙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김수지 선생님, 박보영
선생님, 신혜진 선생님,
이연지 선생님, 최슬기 선생님

아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더 빨리, 더 가까이

세네동 어린이집의 역사가 길다고 들었어요.

곽현희 저희 어머니이신 조금연 여사가 1967년 서울 종로구 천연동 산꼭대기에 열었던 '천우 탁아소'가 모태입니다. 1971년 3월 지금 위치로 옮겨와 '정아 어린이집'이 됐어요. 1972년 3월 '태웅 유치원'이 개원했고, 1975년 7월 두 원이 통합됐죠. 1995년에는 제가 어머니로부터 일을 넘겨받아 건물을 새로 짓고, 1996년 '세네동 어린이집'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탁아소 시절까지 하면 벌써 50년도 더 됐네요.

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특히 원장님 이력이 독특하시더라고요.

곽현희 저는 원래 학사장과 출신에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예요. 동시에 어머니 치마폭을 잡고 탁아소에 다녔던 사람이기도 하죠. 어린이집은 제게 친숙한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셨을 때, 어린이집을 접어야 하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귀한 일이더라고요. 보육이라는 게 자라나는 영유아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하겠다고 나섰죠. 결국 이쪽으로 대학원도 가고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은 대학에서 아동학을 가르치고 있네요.

박보영 저는 2001년부터 우리나라 보육 현장이 바뀌어오는 걸 본 고참 교사입니다. 교사가 된 건 조카 때문이었어요. 제가 조카 바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태어난 큰언니 아들이 첫 조카인데 너무 예뻐서더라고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바꿨어요. 대학에 가서는 조카를 대상으로 실습도 많이 했죠. 조카가 제 첫 제자인 셈이에요.

곽현희 원장

세네동 어린이집 원장. 어느덧 24년 차 보육 전문가로, 상명성결교회 목사이자 총신대 아동학과 교수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영유아 인권전문강사를 맡고 있다.



박보영 선생님

만 2세 희망반을 맡고 있는 18년 차 교사로, 세네동 어린이집에 온 지 3년째다.

매일 손으로 쓰던 수십 개의 알림장, 종이로 된 식단표, 출력하고 오려서 붙이던 사진은 세네동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오랫동안 번거로운 숙제였다. 곽현희 세네동 어린이집 원장과 박보영 선생님은 오랜 불편을 키즈노트로 해결했다. 덤으로 가정과 원,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와 부모님, 가족과 가족의 거리까지 바짝 좁힐 수 있었다.

영유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곽현희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내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지요. 저와 선생님들이 늘 외치는 게 있어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영유아보육법 제1장 제2조를 보면 보육의 정의가 나와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요. 거기에 충실하는 거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해서 제공해야 하니까요. 아동학대 사건이야말로 전문성 결여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4세 아이에게 억지로 김치를 먹여 논란이 됐던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기억하시죠? 발달 단계상 이 시기 아이는 치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섬유질이 많은 김치를 씹기 힘들습니다. 교사가 이걸 알았다면 무리해서 음식을 먹이지 않았을 거예요.

박보영 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아이들 인권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 잘 아는 시대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차츰 변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뭔가를 시도하다가도 아이가 다른 방식을 선호하면 '그걸 한번 해보자' 하고 방향을 틀어보고, 그 뒤에 '선생님이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제안하는 식이죠.

요즘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가 있나요?

곽현희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했어요. 저출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게 사회성 교육이에요.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형제자매가 있고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으니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같이 아이 발달을 지원해주는 환경이었죠. 친인척 관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사회성을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눈 뜨면 출근했다 퇴근하면 집안일 하고 주무시기 바빠요. 요즘 아이들은 원에서 처음 사회성을 기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줄 알다가 원에 와보니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형도 동생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죠.

박보영 아이를 하나만 낳아 기르는 부모님이 많으니까 확실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교육 방법과 새로 나온 교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문화센터 등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시죠.

그래서 아이들 보육 환경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한 아이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호 소통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거나 전달한 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학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의 신뢰가 더 중요해졌겠네요.

곽현희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신뢰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가정과 원의 신뢰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알림장'이에요. 영아는 언어를 통한 전달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알림장이 더욱 필요하죠.

박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를 보면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에 '양방향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양방향적 방법에 해당하는 게 알림장,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등이예요. 알림장은 매일 아이 각자의 원 생활에 대해 손으로 써서 가정에 전달해야 하고요.

알림장을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박보영 수기가 어려운 건 알림장 용지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쓰다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매번 수정액으로 고치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습장에 여러 번 작성하면서 수정 과정을 거친 최종본을 만들고, 그걸 다시 베껴 적는 거죠. 보기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요. 한 번에 다 쓰지도 못하고 하루에 몇 명을 정해놓고 썼죠. 팔도 너무 아프고요.

그런 수고를 덜어준 게 키즈노트군요. 키즈노트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박보영 맞아요. 키즈노트 덕분에 앞서 말씀드린 지표의 양방향적 의사소통 방법에 '스마트 알림장'이 추가됐죠. 요즘엔 수기로 알림장을 쓰는 원보다 키즈노트를 쓰는 원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곽현희 키즈노트 최장욱 대표님과 김준용 대표님이



2011년쯤 저를 찾아오셨어요. 최 대표님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는 하루 일과가 너무 궁금해서 매일 알림장을 챙겨보셨대요. 그런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선생님이 일일이 손 글씨로 쓰고, 사진을 출력해 폴로 붙여서 보냈더라는 거예요. 형식이 그렇다 보니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교사나 부모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키즈노트를 만들기로 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셨죠.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 활동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 이후 수도 없이 만나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했어요. 제가 대표님께 다른 전문가들을 직접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1년 12월 시범 운영 때부터 키즈노트를 저희 원에 도입했어요. 저나 저희 어린이집은 키즈노트 탄생 과정을 함께한 진정한 파트너인 셈이죠.

키즈노트가 도입된 뒤 업무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박보영 일단 편리하다는 게 압도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저는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여서 스마트 알림장이라는 방식 자체가 낯설지 않았고요. 키즈노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알림장 기능이 가장 획기적이었어요. 전에는 종이에 알림장 적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거든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잔뜩 찍고 알림장을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알림장을 올리면 부모님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곽현희 부모님과 선생님 간 소통이 잘되니까 원과 부모, 아이 사이의 신뢰가 확실히 돈독해졌어요. 신뢰는 서로가 더 열린 자세로 대할 때 쌓이는 거잖아요. 원은 원래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오셔서 직접 보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땅치 않아요. 그걸 키즈노트가 보완해줍니다. 사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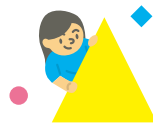
동영상을 찍어 앨범으로 올리면 부모님의 앱에 알림이 뜨니까 바로바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거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곽현희 아이들과 현장학습 갔을 때가 기억나네요. 예전에는 가정통신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현장학습을 갔다가 몇 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만 적어서 보내드렸죠. 그러면 조금만 늦어도 부모님들이 언제 오나 내내 기다리세요. 어린이집 전화는 불이 나고요. 그런데 키즈노트를 도입한 뒤로는 원 밖에서의 일거수일투족도 바로바로 전달해드릴 수 있어요. 전체 부모님들께 전달되는 공지사항 기능을 활용해 지금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예상 도착 시간도 공지해드리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박보영 맞아요. 출발할 때 아이들이 안전벨트 맨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런 작은 정성에

부모님들이 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안전벨트를 매주시겠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안심되실 테니까요. 처음 등원하는 아이들은 엄마랑 떨어질 때 많이 울어요. 어머님들은 출근해서도 마음이 불편하죠. 오전 9시 30분에 우는 아이를 두고 출근한 어머님께 10시쯤 놀이를 하면서 밝게 웃는 아이 동영상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가 30분이면 진정되는구나’ 하고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죠. 또 저는 아이가 무슨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재미있게 했는지 일일이 촬영하고 기록해 전달해드리는 편이에요. 부모님과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보육에 관한 대화도 더 깊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알림장이나 여러 공지사항에 대한 가정의 피드백도 더 충실했을 것 같아요.

박보영 처음 키즈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전달하는 사항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차츰 어머님 아버님이 아이가 주말에 뭘 했는지 정리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박물관 다녀왔어요, 어떤 놀이를 했어요’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월요일에 아이를 만났을 때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수월해집니다. 특히 영아는 말이 서툴러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면 아이가 꼬물꼬물 대답을 곧잘 해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의 상호 소통이 굉장히 편해지고 깊어졌어요.

특히 애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박보영 앞서 말씀드린 알림장, 앨범 기능 외에 투약의뢰서 기능도 정말 유용해요. 아이 증상과 함께 어떤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가정에서 전해주시면, 저희는 그걸 보고 투약 지도를 하고 아이 건강 상태를 다시 전달해드리거든요. 특히 투약은 절대 실수해선 안 되는 부분인데, 기록으로 꼼꼼히 챙길 수 있으니 안심돼요. 아직 제대로 활용해보진 않았지만 번역 기능도 써보려고 해요. 저희 원에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거든요. **곽현희** 저희 어린이집에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세 명 있어요. 캄보디아, 일본, 중국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오신 어머니는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상대적으로 원 소식을 상세히 이해하기 힘들실 거예요. 키즈노트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해결될 문제죠. 부모님들께 공지를 드린 뒤 조만간 이 기능도 활용해볼 생각이예요.

키즈노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 전해드릴 만한 활용 노하우가 있을까요?

박보영 저는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둬요. 그걸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아이 개인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해 완성할 수 있도록요.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른 수업을 연구하고 교육 방식을 고민할 때 참고가 됩니다.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과

선호가 어땠는지 키즈노트에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좋다는 팁도 드리고 싶어요. 글을 올리기 전에 맞춤법 검사를 적용하면 오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거든요. **곽현희** 교육자이다 보니 전문가적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요즘 워낙 모바일에 익숙해 줄임말을 많이 써요.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서투른 경향도 있고요. 키즈노트의 맞춤법 검사 기능 덕분에 부모님들께 보내는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죠.

선생님과 부모님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박보영 이전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부모님들께 전부 공개됐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퇴근하신 뒤 오후 9시, 10시에 전화를 주세요.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신 부모님이 아이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건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일단 받으면 쉽게 꿀을 수도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았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곽현희 저희는 그래서 선생님들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요. 키즈노트라는 공식 창구가 있으니까요. 그것조차 저희 원에서는 오후 8시 30분까지만 댓글을 달고 피드백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선생님들도 사생활이 있고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아직 키즈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원의 원장님, 선생님들께 추천해보셨나요?

박보영 아직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긴 있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시죠. 사용을 망설이는 기관은 일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시나봐요. 저 역시 처음 키즈노트를 활용할 때 적절한 사용 패턴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곽현희 선생님들은 전문가이니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키즈노트를 사용하는 쪽으로 조율해가실 수 있더라고요. 보통은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이나 바쁜 일과가 끝난 뒤 노트북으로 작성하시는 편이에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니 결국 '연결'이 주는 가치의 힘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곽현희 카카오톡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누가 봐도 순기능이 도드라지죠.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익숙한 세대인 젊은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키즈노트가 좋은 도구가 된 것 같아요. 소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그러면 좋은 보육 현장이 되기 힘들죠.

박보영 맞아요. 키즈노트 덕분에 댓글 남겨주시는 아이 할머니, 이모, 아버님과도 소통하기 시작했거든요. 온 가족과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하면서 서로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네동 어린이집, 그리고 두 분이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어떤 원, 어떤 스승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박보영 함께 놀이하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저희 원이 어린이들에게 늘 재밌는 곳,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됐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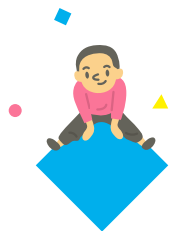
곽현희 졸업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를 다녀온 뒤에도 어린이집을 지나가다 언제든 속 들어와서 '선생님!' 하고 불러줬으면 해요. 아이들이 '내가 언제든 환영받을 수 있는 곳구나' 하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 품을 떠나 가장 처음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게 지역 사회에 꾸준히, 묵묵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네동 어린이집이 되고자 합니다. ▲■●



세계 최초의 스마트 알림장
키즈노트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세 네 동 어린이집 일과 속

키즈노트



07:30 등원 시작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모님들이 출근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원으로 모여듭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당직 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이해요. 선생님들은 우선 부모님들이 키즈노트로 남겨주신 **알림장**과 **투약의뢰서**를 확인합니다.



11:50 점심

오전 활동이 끝나면 손을 닦고 점심을 먹을 차례예요. 이번에도 식단 담당 선생님이 촬영한 점심 메뉴 사진이 키즈노트 **식단표**를 통해 부모님들께 전해집니다.



15:00 귀가 시작

하나둘씩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은 **귀가동의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 귀가 지도를 도우며, 일과 중 찍어둔 활동 사진과 영상을 **앨범**으로 전달해요.

19:30 하루의 끝

종일반 아이들이 다 돌아간 시간.
어린이집 문을 닫아요.



09:50 오전 간식

아이들이 모두 어린이집에 모인 시간, 하루 일과의 첫 단추는 오전 간식입니다. 식단 담당 선생님이 키즈노트 **공지사항** 기능을 활용해 그날의 간식 메뉴를 사진 찍어 공유해요.



13:00 낮잠 및 오후 활동

점심 식사 후 이를 닦고 나면 영아들은 꿈나라에 갈 시간입니다. 유아들은 오후 활동을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낮잠 자는 동안 선생님은 **투약의뢰서**에 따른 복약 현황이나 아이들의 체온, 배변 상태 등을 알림장을 통해 부모님께 전달합니다.



16:30 귀가 차량 지도

어린이집 셔틀 버스가 이 시간에 출발합니다. 아이들이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간 이때부터 선생님들은 오늘의 전달 사항을 아이들 각각의 **알림장**으로 적어 보내요.



10:30 수업과 활동

간식을 먹고 나면 국가 수준 보육 과정에 맞춰 발달 단계별 수업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교육 프로그램**에 미리 올려둔 자료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틈틈이 사진으로 촬영해둡니다. 키즈노트 **앨범**에 올리기 위해서죠.



14:30 오후 간식

다시 간식 먹을 시간입니다. 오전처럼 식단 담당 선생님이 키즈노트 **공지사항**으로 식단을 공유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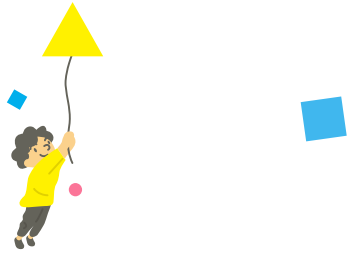
18:00 종일반 시작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종일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당직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지도합니다. 선생님들은 상황에 따라 **알림장**에 달린 댓글을 체크하기도 해요.



키즈노트가 좁혀준 거리

선생님과 부모님, 아이와 가족들



**슬기반 김재원(6),
희망반 김재준(4) 군
어머니 정은주 씨**

일을 하다 아이를 낳고 그만뒀어요. 지난해 재준이까지 어린이집에 보낸 뒤에야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죠. 어린이집에 처음 보냈을 때 재원이가 세 살이었어요. 재준이를 낳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한창 어린이집 교사 폭행 이슈가 불거질 때라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엉엉 우는 재원을 매일 보니까 저도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처음 키즈노트를 다운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아날로그식 알림장이 아무래도 익숙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쓰면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에는 아이들 낮잠 자는 동안이나 쉬는 시간 틈틈이 알림장 쓰느라 정신이 없으셨대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선생님들이 더 여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 거죠.

손으로 쓰는 알림장은 '오늘 뭐 했어요' 하는 식의 나열에 불과할 테니 한계가 분명히 있죠. 키즈노트로 아이의 급한 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루종일 우리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육하시는 선생님께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늘 바쁜 선생님께 통화 요청을 하기도 신경 쓰였는데 그때그때 키즈노트로 말씀드리면 시간 되실 때 확인할 수 있고, 편하실 때 통화할 수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신뢰가 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

키즈노트가 저랑 선생님 사이만 좁혀준 게 아니에요. 아이 아빠랑 양가 할머니들까지 제 아이들로 접속해서 매일 아이 상태를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다고 남편이나 부모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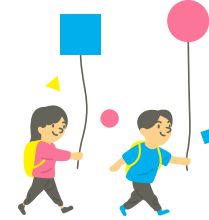
가까이서 아이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 좋아하세요. 특히 아이 아빠는 퇴근하고 와서 낮 동안 본 알림장을 바탕으로 '너희 오늘 이런 것 했더라?' 하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평소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빠가 잘 모르면 대화하기 쉽지 않고 서먹할 텐데 보기 좋더라고요.

**희망반 박지완(4) 군
어머니 최연옥 씨**

제가 너무 버거워서 16개월 때부터 지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적응을 잘해줘서 고맙죠. 너무 어릴 때부터 보낸 거라 낮가림도 심하고, 제가 곧 다시 일을 하면서 더 걱정이 됐는데 키즈노트 덕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인터넷을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키즈노트는 사용법이 편하고 디자인도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 알림장 기능이 빛을

키즈노트는 선생님들의 업무 환경뿐 아니라 부모님, 더 나아가 가족의 일상까지 바꿔놓았다. 키즈노트에 고스란히 기록된 아이의 하루는 가족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먼 훗날 추억으로 남는다. 세네동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세 명의 어머니가 키즈노트로 달라진 일상을 전한다.



발했을 때는 지원이가 아팠을 때예요. 투약의뢰서를 보내드리니까 선생님께서 그대로 약을 먹여주시고, 알림장에 그때그때 지원이 체온과 상태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직장에서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안심이 됐어요. 매일 뭘 먹었는지 식단표 사진도 오니까 든든하더라고요.

하루 일과는 글로 써서 알림장에 남겨주시는데, 키즈노트가 없었다면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야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자주 할 수 없었겠죠.

키즈노트를 통해 글로 소통하면서 정제된 표현과 예쁜 말로, 필요할 때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오후 2~3시쯤 알림장이 한 번 올라와요. 그때가 직장에서 가장 힘들고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면 피로가 싹 풀려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아빠들이 아이들 알림장 같은 데 신경 쓰기 어려운 집이 많을 거예요. 저희는 남편도

키즈노트를 통해 아이 소식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있어서 가족이 하나가 된 기분이 들어요.

부부가 귀가한 뒤에는 키즈노트로 받은 사진을 아이랑 같이 보면서 하루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많은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진 속 친구를 소개받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랑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 행복합니다.

**기쁨반 허준혁(7) 군
어머니 김영숙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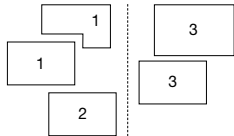
준혁이가 첫째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어느덧 5년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익숙해졌지만요. 키즈노트 공이 커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알림장 기능입니다. 손으로 쓰는 알림장이라면 아이가 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매일 사진이 올라오니 안심이 돼요. 글로 전해지는 거랑 아이 표정을

직접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달아주시는 설명에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남길 수 있어서 소통이 더 쉬워진 느낌입니다.

특히 아이 생일에 파티를 한 사진을 20장 넘게 보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 준혁이가 생일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구나 싶어서 몽글하더라고요. 현장학습이나 소풍 갔을 때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도 참 좋고요. 사진을 바로 휴대폰에 다운받을 수 있어서 편해요.

식단표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식단표를 참고해서 제가 집에서 해 먹이는 음식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알림장을 손으로 쓰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워요. 키즈노트를 보여줬더니 엄청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더라고요. 키즈노트가 더 널리 알려져서 모두가 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



1. 슬기반 김재원(6), 희망반 김재준(4) 군
어머니 정은주 씨
2. 희망반 박지완(4) 군
어머니 최연옥 씨
3. 기쁨반 허준혁(7) 군
어머니 김영숙 씨



키즈노트 이렇게 태어났어요

키즈노트는 아빠의 마음에서 태어났다. 딸을 생각하는 아빠의 진심이 담겼기에, 새롭고 낯선 서비스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과 서로 통할 수 있었다. 카카오와 힘을 합한 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키즈노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김준용(왼쪽), 최장욱(오른쪽) 키즈노트 공동대표가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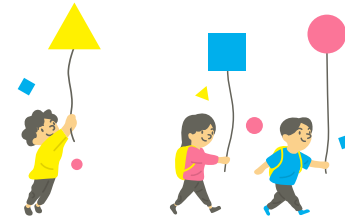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카카오 자회사인 키즈노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장욱, 김준용입니다. 키즈노트는 원과 가정, 부모와 아이를 이어주는 영유아 기관용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키즈노트는 카카오의 핵심 가치인 '연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빠로서 딸과 조금 더 가까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비스니까요. 첫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매일 밤 퇴근 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생활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알림장뿐이었어요. 선생님이 작성해주신 알림장 속 글과 사진으로 아이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명의 알림장을 일일이 손으로 쓰고, 사진을 출력해 오려 붙이는 선생님들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원 생활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선생님은 편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는 없을까?' 이 의문에서 키즈노트가 시작됐어요. 2011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어린이집 현장 견학을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스마트폰 앱 서비스 키즈노트가 탄생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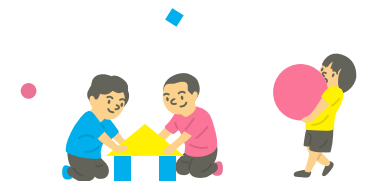
키즈노트는 2015년 1월, 카카오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키즈노트가 카카오 자회사로 편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카오 브랜드, 인프라가 가진 '신뢰'였습니다. 키즈노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에서 키즈노트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입장에서 키즈노트 도입은 알림 내용, 공지사항을 앱으로 옮기면서 원의 운영 체계와 부모님과의 소통 방식이 바뀌는 거라서 쉽지 않은 일이었죠. 키즈노트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원에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었어요. "카카오톡 아시죠? 키즈노트는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키즈노트를 신뢰해주셨어요. 또 편리한 서비스를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큰 매력을 느끼셨고요.

키즈노트에는 카카오의 기술이 많이 녹아 있기도 해요. 맞춤법 검사, 날씨 정보, 이미지 편집 시스템인 '알볼로'까지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더 편하게 키즈노트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종 기능을 더해가는 중이에요. 2013년 9월 다문화가정 부모님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번역 기능을, 2017년 6월에는 콘텐츠의 맞춤법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모든 기록을 책으로 만들어 간직할 수 있는 키즈노트북을 론칭했고요. 앞으로도 카카오의 여러 자원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더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키즈노트의 진화를 기대해주세요! ▲●●



우리 아이의 원 생활,
책으로 간직하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숫자로 보는 키즈노트

키즈노트는 서비스 개시 6년 만에 대한민국 어린이집·유치원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 전 세계의 보육 현장으로도 빠르게 스며드는 중이다. 키즈노트가 남긴 기록을 숫자로 돌아본다.

대한민국 영유아 키즈노트로 통한다

지난 4월 기준 4만 곳이 넘는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키즈노트를 활용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5만71곳. 전국 원의 83.2%가 키즈노트에 가입한 셈이다. 키즈노트에 가입한 교사와 학부모 수를 더하면 170만 명에 이른다.

총 가입원 수

4만1644곳

총 가입자 수

169만8513명

가입한 원장·교사 수

22만6204명

가입한 학부모 수

143만1027명

가입원 비율

83.2%

키즈노트가 남긴 기록

지난 3월까지 오고간 키즈노트 알림장을 A4 용지에 인쇄해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산 2배 높이에 달한다. 알림장과 앨범 내 사진을 4x6인치 사이즈 사진으로 인화해 이어 붙이면 월드컵 축구장 2049개 면적을 채울 수 있다.

* 일반 사진 사이즈 4x6 면적 : 10cm x 15cm = 150cm²
삼암 월드컵축구경기장 면적 : 7140m²

	누적 정보	2018년 3월 일평균 (평일)
알림장 게시물 수	1억9351만3156건	38만4698건
알림장 내 사진 수	4억1396만6448장	419만1335장
앨범 게시물 수	3455만1433건	31만2828건
앨범 내 사진 수	5억6133만4168장	109만6238장

키즈노트 알림장

A4

17,696 m
(8,848 m x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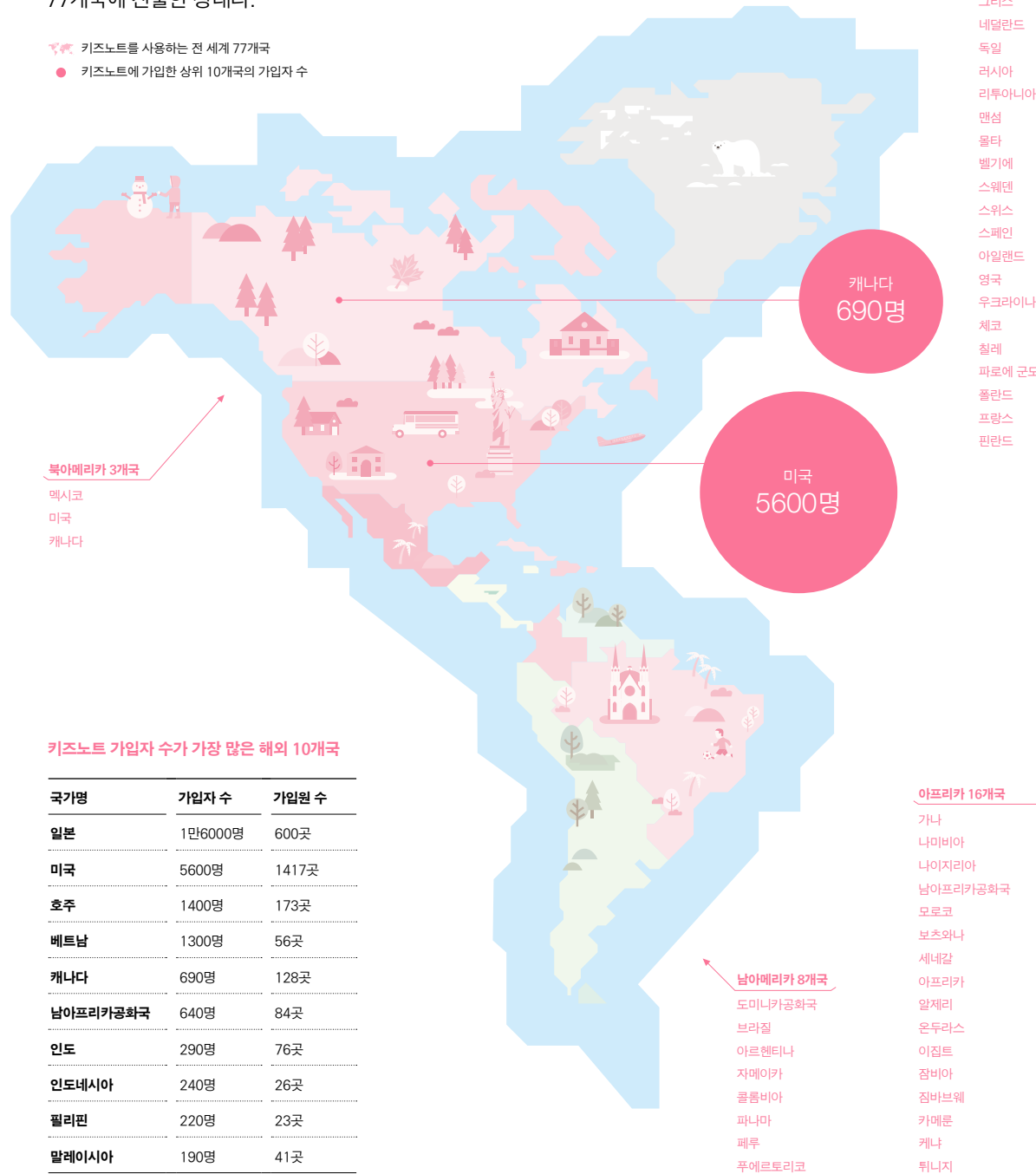
에베레스트 산

8,848 m

세계로 향하는 키즈노트

키즈노트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6개 대륙 총 77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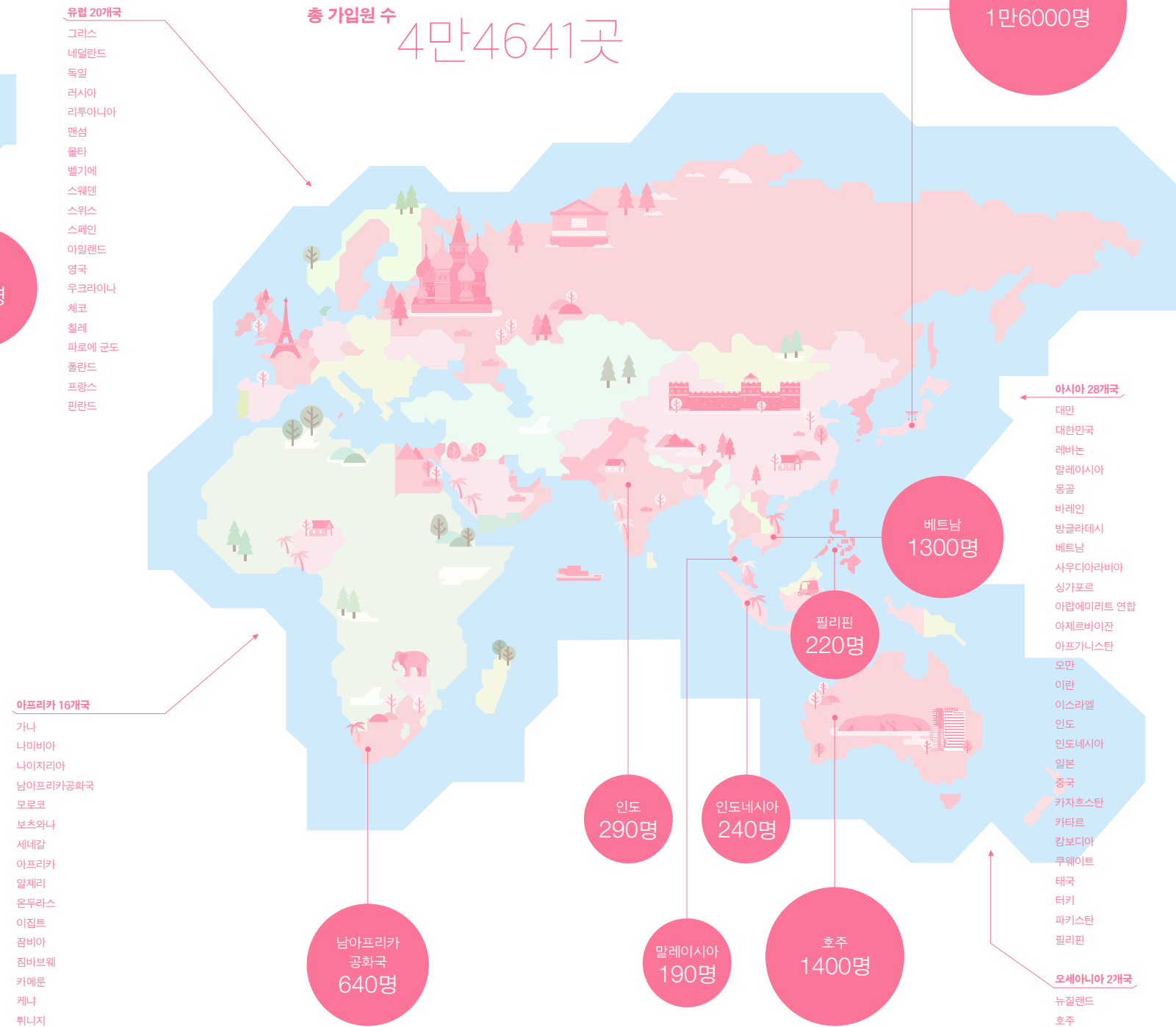
- 키즈노트를 사용하는 전 세계 77개국
- 키즈노트에 가입한 상위 10개국의 가입자 수



국가명	가입자 수	가입원 수
일본	1만6000명	600곳
미국	5600명	1417곳
호주	1400명	173곳
베트남	1300명	56곳
캐나다	690명	128곳
남아프리카공화국	640명	84곳
인도	290명	76곳
인도네시아	240명	26곳
필리핀	220명	23곳
말레이시아	190명	41곳

서비스 국가 6대주 77개국

총 가입원수 4만4641곳



부부가 함께 그리는 귀촌 라이프

부부 웹툰 작가 김주영·주태희 씨는 다음웹툰에서 2010년 팀으로 데뷔한 베테랑 작가다. 스스로를 '생계형 만화가'라고 소개하는 두 사람의 최신작 <풀 뜯어먹는 소리>에는 물가 높은 도시를 떠난 부부의 좌충우돌 시골 생활을 담았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만화 속 캐릭터를 꼭 닮은 부부를 서울의 한 만화 카페에서 만났다.

얼마 만의 서울 나들이인가요?

김주영 두 달 만에 올라왔어요. 업무 미팅 때문에 생각보다 서울에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주태희 인터뷰 끝나면 아내와 맛집에 가보고 구경도 한 뒤 밤에 내려가려고요. 덕분에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좋네요.

팀 글피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김주영 저는 스토리를, 남편은 일러스트를 맡고 있어요. 제가 먼저 콘티를 짜면 남편이 스케치와 펜선을 그리고, 제가 거기에 밑색을 칠해요. 이어서 남편이 그림 후반 작업을 끝내면 제가 다시 최종 파일을 모아서 대사를 넣고 간격을 조정하면서 편집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주태희 저는 원래 게임 회사에서 일러스트를 담당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친한 후배였던 아내의 권유로 같이 웹툰을 그리게 됐죠. 글피라는 팀 이름도 처음부터 쪽 써오고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는 너무 촉박한 것 같고, 글피쯤에는 우리도 만화가가 되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두 분이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건지 궁금해요.

김주영 남편이 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예요. 교내 만화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2학년 때 생긴 동아리라 3학년이던 남편은 거의 활동을 못 했지만요.

주태희 졸업하고 한동안 안 만나다 직장인이 된 후 출퇴근 지하철에서 아내를 우연히 만났어요. 제 출근 시간이라 아내의 대학원 통학 시간이 겹쳐서 일주일에 1~2번은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안산에서 강남까지 꼬박 2시간 걸리는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야근도 잦아서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는 날의 연속이었죠.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내가 같이 웹툰 공모전에 지원하자고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웹툰과는 어떻게 가까워지셨나요?

김주영 2008년 대학원에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논문 주제로 웹툰을 연구했어요. 다음을 비롯해 지금은 없어진 '야후'나 '파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만화 무료

글피 작화가 주태희(왼쪽)와 스토리 작가 김주영(오른쪽)으로 구성된 웹툰 작가팀. 동료이자 부부인 두 사람은 2010년 다음웹툰 <매지컬>로 데뷔한 후 <레이어즈> 시리즈, <라임 오딧세이> 등을 팀 작업으로 선보였다. 현재 충남 공주시의 귀촌 마을에 거주하며 부부의 모험 같은 실제 일상을 웹툰 <풀 뜯어먹는 소리>로 연재하고 있다.

연재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강풀 작가의 초기 작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웹툰이라는 장르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죠. 그러다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친한 선배였던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집도 가까우니 같이 일하기도 편할 것 같았어요.

팀 '글피'의 첫 공모전 결과는 어땠나요?

주태희 떨어졌어요. 다시 취직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내가 계속 도전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간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와서는 회사원으로 버는 돈의 열 배를 벌게 해주겠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 당시엔 결혼은커녕 연애를 하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안정적으로 월급받던 직장인이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의 수입을 검색해봤어요. 회당 10만원, 혹은 한 달에 40만원 정도 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김주영 저희가 10만원 받으면서 데뷔한 마지막 세대예요. 2010년에 데뷔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웹툰 작가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신인 작가의 기본급도 보장이 잘되는 것으로 알아요.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주태희 자료 조사 차 덕수궁에 있는 미술관에 간 날이었어요. 날씨가 무척 좋은 평일 낮에 여유롭게 바깥을 거닐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해가 뜬 하늘을 볼 일이 없었거든요. 일요일에는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생각에 우울했고요.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이 일상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김주영 그 기억이 정말 좋았던 모양인지 저희는 지금도 주말에는 절대 외출을 하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국도를 지나야 하는데 주말이면 항상 길이 꽉 막히거든요. 주차도 힘들고요. 평일에는 저희가 전세 낸 것처럼 다닐 수 있는 곳인데 말이죠. 남편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평일 오후에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곤 해요.

다음웹툰에서는 어떻게 연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주태희 당시 웹툰 작가 지망생에게는 다음 '만화 속 세상'(현 다음웹툰)의 '나도 만화가(현 웹툰리그)'가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등용문이었어요. 여기서 <레이어즈>라는 판타지 학원물을 연재하던 중 다음웹툰에서 연락을 주셔서 2010년 4월 <매지컬>이라는 8화짜리 단편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후 <매지컬>을 시즌 2까지 연재했고, 이어 장편 연재 계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김주영 저희의 첫 웹툰 도전작인 <레이어즈> 역시 2011년 다음웹툰에서 정식으로 연재했고 시즌 2인 <레이어즈 아나키>까지 선보였어요. 다음에서 유통한 '라임 오딧세이'라는 게임과 협업으로 동명의 웹툰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어느덧 8년 차 웹툰 작가입니다.

그동안 웹툰 시장에도 변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주태희 스마트 기기가 보급된 것이 가장 큰 변화죠. 저희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비한 편이에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매장에 찾아가서 저희 웹툰이 어떻게 보이는지, 글씨 크기는 적당한지 체크하기도 하고요. 웹툰을 그릴 때 보통 종이에 스케치를 하고 스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초기에는 그랬고요. 2015년부터는 모든 작업을 태블릿 PC로 하고 있어요. 다음웹툰 작가 모임에 나가면 제 작업 방식에 대해 다른 작가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물어보시곤 해요.

김주영 예전보다 유료 독자가 훨씬 많아진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예요. 완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아서 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유행하는 장르도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데뷔했을 무렵에는 공포, 스릴러가 유행이었다면, 여성 독자가 점점 많아져서 로맨스물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또 한동안은 옴니버스 형식의 일상툰이 많은 사랑을 받다가, 지금은 다시 호흡이 긴 스토리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풀 뜯어먹는 소리〉가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귀촌을 결심하셨나요?

김주영 순전히 생계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저희는 두 사람이 일해도 한 작품의 고료를 받는데 도시의 물가는 터무니없이 비싸니까요. 웹툰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얼마든지 가능하니 꼭 도시에서의 삶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먼저 상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추진력이 굉장하시거든요. 그 다음 주에 찾아보았더니 벌써 부동산을 여기저기 알아보셨더라고요. 귀촌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사를 하기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반대가 심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제일 좋아하세요.

반면 불편한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김주영 병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처음에 귀촌을 결심했을 때는 저와 남편만 내려가려고 했어요. 아파도 젊으니까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귀촌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고, 어머니까지 내려오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이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주태희 적응할 만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요. 멧돼지가 출몰해 저희가 가꾼 고구마밭을 다 망쳐놓거나, 두더지가 딸기를 따먹기도 하고요. 직접 텃밭을 일궈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꿨는데, 현실은 야생동물 세상이더라고요. 저희는 나물 캐먹고, 민들레잎 따먹고 그래요.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 작품과는 장르가 확연히 다른 일상툰이기도 해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었나요?

김주영 귀촌하고 1년쯤 지나니 이곳 생활을 웹툰으로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주로 10~20대 남성 독자들을 만나왔는데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웹툰을 그려보고 싶었죠. 또 시골에서 사계절을 겪으며 쌓인 무궁무진한 에피소드를 풀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처음엔 다른 플랫폼에서 선보인 판타지를 작업을 끝내고 출산을 하면서 일에 매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도와주시면서 작품 기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주태희 다음웹툰 박계현 PD님께 처음 기획안을 보여드렸을 때는 저희를 주인공 삼을 게 아니라 픽션을 가미하면 어떻겠냐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스누피’나 ‘심슨’처럼 가상의 캐릭터가 귀촌 마을에서 살아가는 내용으로요. 신혼부부가 주인공인 일상툰은 이미 많이 있으니 차별화된 콘셉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콘티를 짜보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주영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 캐릭터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가 박 PD님을 설득했어요. 캐릭터 시안도 많이 보여드리고요. 여태까지 연재한 웹툰과는 전혀 다른 작업이어서 기획 단계에서 박 PD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리는 방식이나 채색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많이 얻었고요.

다음웹툰 담당 PD와 원래 기획 단계에서 의견을 많이 주고받는 편인가요?

주태희 PD님들은 독자들에 대해 저희가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웹툰 독자들의 연령과 성별, 선호하는 장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잘 드러나게끔 기획 단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기획이 통과돼 연재하는 동안에는 작가의 역량에 맡겨주시는 편이고요.

김주영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에 비해 기획안 통과가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이미 작품을 연재한 경험이 있는 작가라 해도 예외는 없어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PD님들이 많이 영입되었고, PD님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 편집 회의를 통과된 기획안만이 연재의 문턱을 넘을 수 있거든요. 작품이 잘되어야 작가에게도 좋은 거니까 이런 과정과 PD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죠.

팀 글피에게 다음웹툰은 어떤 존재인가요?

김주영 친정 같아요. 어디서 데뷔했는지도 웹툰 작가에게는 꽤 중요하거든요. 다른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다음웹툰에서 저희 작품을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풀 뜯어먹는 소리〉를 어느덧

2년 반 넘게 연재하고 있으니 저희에게는 다음웹툰이 주업인 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이 낮았는데 지금은 보통 직장인만큼은 벌거든요. 귀촌을 결심했던 당시만 해도 생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귀촌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웹툰 작가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초창기만 해도 웹툰은 포털 사이트 서비스의 일부이고 무료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2014년부터 유료 구매 독자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프리랜서여서 다른 일거리가 더 있고 없고에 따라 수입의 변동폭이 큰 편이죠.

주태희 프리랜서지만 소속감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회사 다닐 때의 복지가 가끔 그리기도 하고요. 다음웹툰에서는 작가들 상대로 건강검진까지 시켜주세요. 건강관리에 소홀한 웹툰 작가들이 많아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의견이 부딪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비결이 있나요?

김주영 마감을 하려면 강제로라도 화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냉랭하면 일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 기분이 나빴는지,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대화하면서 풀어요. 둘 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같이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해요.

주태희 저희는 하루 동안 10m 이상 떨어져 있을 일이 거의 없어요. 방금 인터뷰하다 아내가 화장실 갔을 때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두 분이 서로에게 최고의 짝꿍인가봐요.

주태희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심지어 관심사까지 비슷하기는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성격이 아무리 잘 맞아도 서로의 취미나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죠.

김주영 맞아요. 언젠가 남편이랑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나갈 준비를 다 하고도 신용카드를 찾느라 시간을 지체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다른 가족이나 친구라면 저를 비난했을 텐데 남편은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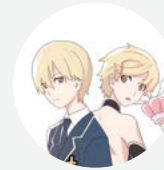
나도 같이 챙겼어야 했는데' 하면서 같이 카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때 남편에게 또 한 번 반했어요.

주태희 결혼 전에 반했던 순간은 없나요? 역시 그림

그리는 노예가 필요했던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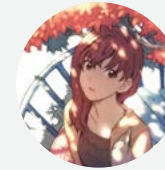
김주영 에이, 그걸 리가요. 어쨌든 해피엔딩이잖아요. ▣

부부가 함께 만든 웹툰들



매지컬 크래쉬

2010년 4월 25일 ~ 2010년 9월 26일
팀 글피의 웹툰 데뷔작으로 매지컬 프린세스를 기르는 한 요정의 분투기를 그렸다. '마법 소녀물'이라는 기존 장르를 살짝 비틀어 곳곳에 코믹 요소를 배치한 팀 글피만의 센스가 돋보인다. 8화짜리 단편으로 기획되었으나 독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시즌 2까지 연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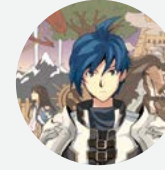
앞으로 나란히

2010년 12월 8일 ~ 2011년 2월 2일
팀 글피의 두 번째 단편 연재 작품.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은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로맨스물이다. 스마트폰과 QR 코드라는, 당시로서는 신선한 소재를 활용한 이야기 전개로 주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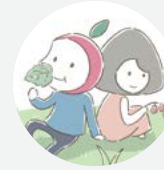
레이어즈 시리즈

2011년 3월 8일 ~ 2012년 6월 14일
다음웹툰 '나도 만화가(현 웹툰리그)' 등지에서 연재하던 팀 글피의 첫 웹툰 도전작으로, 1년 만에 다음웹툰에서 정식으로 연재됐다. 시공을 초월한 공간 '레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의 갈등과 모험을 그린 판타지 학원 액션물이다. 지금까지도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댓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라임 오딧세이

2012년 10월 25일 ~ 2013년 9월 19일
동명의 판타지 게임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판타지 어드벤처물.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로운 과일 '라임'을 찾아나서는 게임의 콘셉트를 글피만의 독자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풀어냈다. 초기에는 게임 재발매 시기에 맞춰 16부작으로 기획됐으나,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며 45화로 완결되었다.



풀 뜯어먹는 소리

2015년 12월 14일 ~ 연재 중
(현재 시즌 4 연재 중)

신혼 2년 차이자 웹툰 작가 부부인 '천도복'과 '치마요'가 무작정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귀촌의 일상을 그린 웹툰. 글피 작가 부부의 실제 경험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귀촌 생활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풀 뜯어먹는 소리',
직접 보고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모두가 자라는 '푸른 꿈 작은 공부방'

제주시 건입동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앞에 작고 소박한 건물 한 채가 서 있다.
2006년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열정으로 태어난 '푸른 꿈 작은 공부방'.
교육 성장 네트워크 '꿈들'을 꾸리고 지난해 10월 이곳에 새 공부방을 지어 올리는 동안
예비 교사들은 어엿한 선생님이 됐다. 스토리펀딩은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교육 성장 네트워크 꿈들
제주교대 학생들이 만든 '푸른 꿈 작은
공부방'에서 파생된 비영리 민간단체.
꿈들 8기인 제주 동화초등학교 2학년
2반 담임 허은지 선생님(왼쪽)은
스토리펀딩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제주교대 3학년인 김상은(오른쪽) 씨는
꿈들 13기로 새 공부방 방장을 맡은
예비 교사다.

청춘,
그 순수한 무모함

연면적 194㎡, 지상 1층 규모의 '푸른 꿈 작은 공부방'.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옥상까지 달려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오르막길, 옥상의 야외 무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갖춘 꿈의 공간. 아이들의 꿈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열정이
설계도가 되고 건물이 되어 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공부방의 13년 역사는 부침
의 연속이었다고 허은지 선생님은 말한다. "매 순간이 위기였어요. 처음 공부방을 연
선배들이 한 1~2년 갈까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데,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
니 얼떨떨하고 신기해요."

공부방은 2006년 제주교대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오준수 씨가 내건 공약에서
시작됐다. 학원에 가지 않는 건입동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공부방을 만
들어 교육복지 사업을 해보겠다는 조금 막연한 이야기였다. "건입동은 제주 구도심 권
역이에요. 한때 중심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낙후된 거죠. 교육 환경이 제주 외곽으
로 발달하는 도시를 따라 형성되면서, 건입동 아이들은 교육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어
졌어요. 그게 공약이 탄생한 배경이었을 거예요."

학생회 자치기구를 주축으로 구상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공부방은 건입동
어느 가정집에 등지를 틀었다. 방 세 개와 부엌, 거실이 있는 30평짜리 집이었다. 50년
도 더 된 낡은 곳이지만 가정집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아늑함을 느낄 것
같아 그 집을 골랐다고 한다. 학생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직접 문을 두드리
공부방에 올 아이들을 모집했다. 한 아이의 친구를 부르고, 친구의 친구를 불러
30여명을 공부방에 등록시켰다. "지금은 동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등
에서 매년 3월 아동 수급 신청을 받는데, 처음에는 선배들이 한집 한집 찾아다니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모았다고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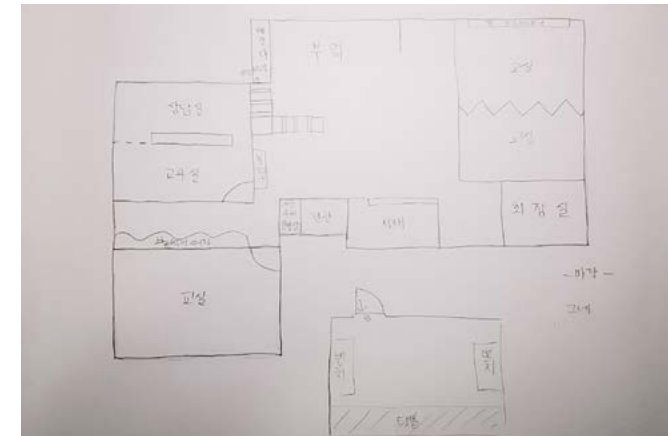
문을 연 뒤로 한 해도 쉽게 보낸 적이 없었다. 학생들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해

서 운영비를 충당했다. 학교 축제 때 주점을 열어서 난방비를 버는 식이었다. 이듬해에는 못 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안고 10년을 부대꼈다. 그동안 공부방 공간 문제는 줄곧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다. “수리 안 된 집에서 방충망도 없이 지냈으니까요. 곰팡이 안 낀 곳이 없고,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안전사고 문제도 발생했어요. 제가 활동할 때 확실히 이곳은 더 이상 애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앞집, 옆집에 사과를 하러 다니는 것도 고된 일이었다.

등지 틀기만큼 어려운 등지 옮기기

공부방 멤버들은 작더라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마침 공부방 근처에 제주대학교 소유의 공터가 있었다. 지역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론을 모으고 제주대 총장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오면 땅을 내주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었다. 역시 돈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동안 공부방을 지원해주던 어른들조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것도 대단하니까 이제 그만 해, 너희 분수에 맞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게 학생들의 일상이었다. “그동안 공부방 시설 수리를 무료로 도와주시던 낭이와 대표 김철 소장님께서 예산을 짜주셨는데, 가건물로 짓는다 해도 한 평에 50만원, 최소한 총 30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셨어요.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러나 학생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열을 다듬었다. 2015년 ‘공부방 이사추진위원회’가 마련되면서 일의 체계가 잡혔고, 이미 발령을 받고 선생님이 된 OB 멤버들이 위원회를 이끌며 힘을 보탰다. 제주교대 학생회 자치기구 형태로 유지되던 조직이 ‘꿈들’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발족한 것도 이때였다.

젊고 무모했기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절이다. “얼마가 됐든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모을 수 있겠지, 발로 뛰면 되겠지 싶었어요. 학교 끝나면 무작정 도의원님, 동장님,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서 ‘공부방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봤어요. 어이없어서 웃으시다가도 여러모로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아름다운가게’의 조언을 바탕으로 바자회를 열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뛰어다니며 물건을 모았다. 바자회는 2015년 10월 24일 1000만원의 수익을 남기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2016년 2월 14일 열린 ‘푸른 꿈 작은 공부방 새 보금자리 기금 마련 음악회’에서도 힘이 될 만큼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야기가 불러온 기적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도 여전히 비용이 조금 부족했다. 그때 꿈들 멤버로 활동 중인 박경호 제주청년협동조합 이사장이 스토리펀딩 얘기를 꺼냈다. 허은지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일이구나’ 싶었다고 한다. “전에 몇 번 스토리펀딩 연재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펀딩을 받는 구조라니, 딱 내가







할 일이구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운영진은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이야기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백영선 스토리펀딩 PD가 전해준 구체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백 PD님이 공부방이나 제주도와 관련된 리워드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코치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시를 쓰시는 안진영 선생님께 재능기부를 받아 동시 엮서, 동시 CD 리워드를 마련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죠. 스토리펀딩은 누가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라 멋진 일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셨던 백 PD님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글쓰기도 허은지 선생님의 일상이 되어갔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그 애정에 대한 보답을 ‘리워드’로 하는 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덧 스토리펀딩이 제 삶을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펀딩이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펀딩이 시작될 때부터 방장을 맡고 있는 김상은 씨도 그랬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제주 건입동에서 저희 같은 학생들이 하는 작은 공부방인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줄까 싶었거든요.” 허 선생님은 한술 더 떴다. “확신이 전혀 없었죠. 저는 아르바이트해서 번 제 돈을 다 넣으려고 했어요.”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달랐다. 지난해 5월 23일까지 50일간 200만원을 목표로 진행한 펀딩에 총 423만2500원이 모였다. 목표 금액을 212%나 달성한 것이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김상은 씨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본질을 생각했다고 한다.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요. 스토리펀딩을 하게 된 계기부터 과정, 후기까지 연재되니까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내가 펀딩을 한다는 것을 넘어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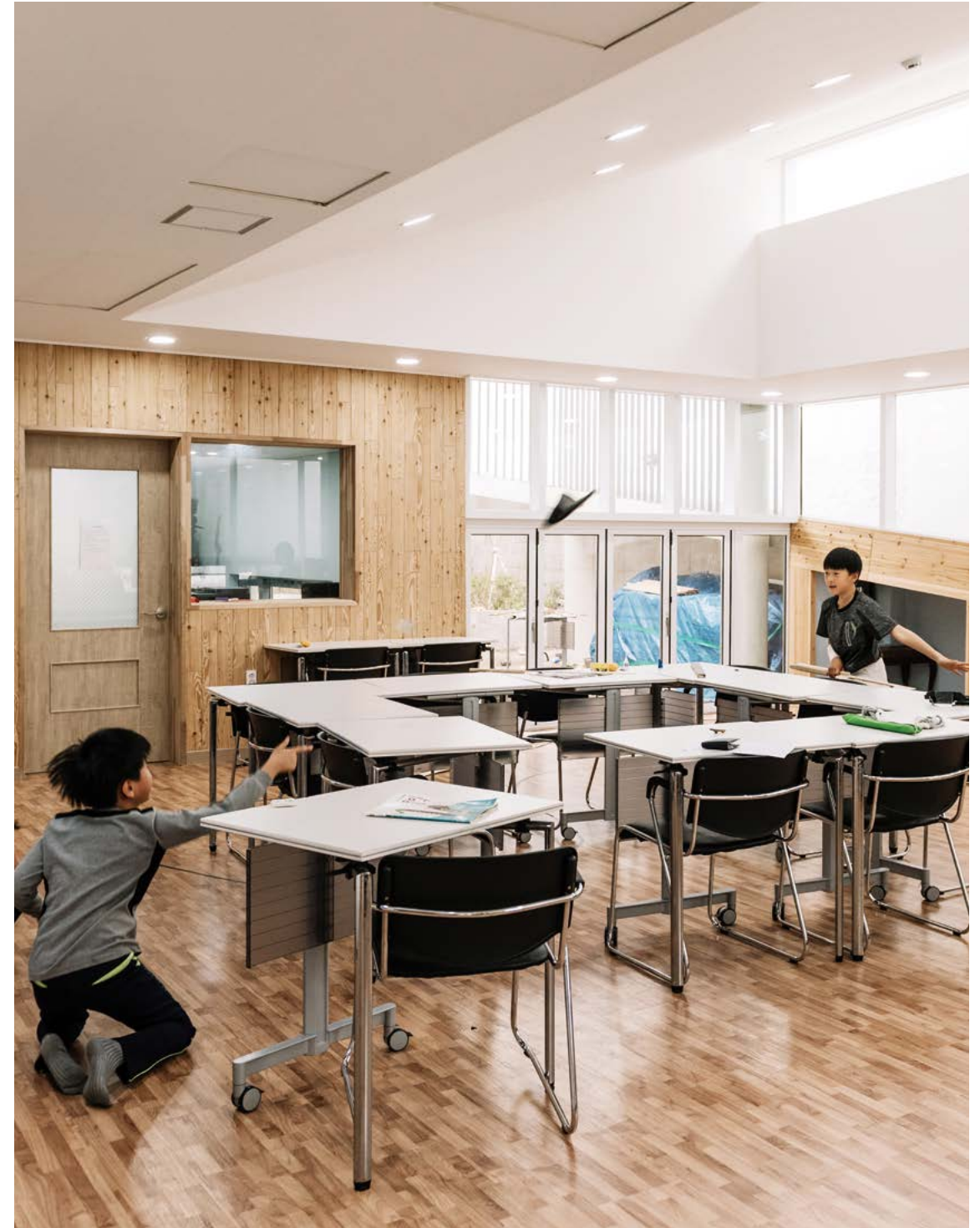
허은지 선생님은 의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또 우리 사회의 관심사 1순위가 교육이다 보니 저희가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하는 마음, 교육에 대한 믿음,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것 같아요.” 펀딩을 마치고 리워드를 전달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연락했더니 진심이 듬뿍 담긴 문자들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것밖에 못 해서 너무 미안해요’, ‘오히려 제가 힘을 받았어요’ 이런 문자를 받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선뜻 돈을 보내주시는 그 마음 자체가 전하는 울림이 워낙 컸거든요.”

현역으로 공부방을 이끌어가는 김상은 씨에게 주는 의미도 컸다. “저 좋다고 하는 일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참 좋았고, 무엇보다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 공부방 멤버들이 스토리펀딩을 계기로 다 같이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게 기뻐요.” 스토리펀딩 덕분에 공부방은 제주 지역사회에 더 널리 알려졌고, 아이들 수급도 더욱 원활해졌다. 공부방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건 덤이다. “공부방 한다고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걸 이해 못 하시던 부모님들이 스토리펀딩을 꼭 읽어보시고는 정말 장하게 생각해주시고 또 공감해주셨어요.”

꿈이 자라는 곳

새 공부방은 2017년 10월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에 아이들 뜻을 담아 공간을 꾸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진을 잘라와서 직접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아이들은 축구장처럼 넓어서 땀 차면 공이 저 멀리 날아가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개미소굴처럼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어요. 선생님들끼리도 회의를 많이 하면서 하나씩 그림을 짜맞춰갔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것은 ‘공간’의 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은지 선생님은 스토리펀딩 소개글에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을 지낸 허순영 제주 도서관친구들 회장의 이야기를 썼다. 초등학교 때 기적의 도서관에서 뛰어놀던 한 아이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경험한 덕분에 커서 건축을 전공하게 됐다는 얘기다. “좋은 공간에서 놀았던 기억을 간직한 아이가 ‘건축가’라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저희 공부방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뛰어놀면서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했습니다.”

김상은 씨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주는 특유의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부방이 아이들이 온전히 뛰어놀 수 있으며, 보호받고, 사랑받고,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새 건물로 온 뒤로는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분명히 느끼고 있다. “여기선 선생님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꿈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발성’이라고 김상은 씨는 비롯한 공부방 선생님들은 믿고 있다. “선생님이든 아이들이든 스스로 배우고 싶은 걸 최대한 배울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수업도 아이들과 선생님의 의지로 다양하게 꾸려나가는 중이다.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하고, 지역 역사 탐방을 나가거나 과학 실험 활동을 하기도 한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

96명의 아이들이 공부방을 거쳐갔고, 101명의 대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공부방에서 생겨난 ‘꿈들’은 신입 교사 공부 모임 ‘꿈꾸는 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영감을 주고받는 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부방이 열세 살이 되고, 꿈들이 번듯한 단체가 되고, 초등학생이 어른이 되는 동안 예비 교사들은 어엿한 선생님이 됐다. 허은지 선생님은 교단에 서기 전에 공부방에서 배운 것들이 자신을 진짜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말한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키우고, 함께한 선생님들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그렇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허은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던 일을 특별하게 기억한다. 단순히 아이랑 친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녁때 집에 데려다주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던 아이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집에 가보니 아이가 그동안 동생까지 챙기며 빈집에서 일 나간 엄마를 기다려왔더라고요. 아이 내면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 아이 삶에 생각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 책임감이 커졌죠.”

아직은 예비 교사인 김상은 씨도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과 자극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다. “처음 교대에 왔을 때는 그냥 착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방에 오고부터 정신을 차렸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상은 씨는 아이들과 주고받는 사랑으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이 저에게 준 사랑 덕분에 저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죠. 아이들은 저를 통해, 저는 아이들을 통해 배우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그게 교육 아닐까요?”■



푸른 꿈 작은 공부방의
뒷이야기를 더 읽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푸른 꿈 작은 공부방에서 우리 꿈이 자라요



안태진
제주동초등학교 5학년

지난해 12월쯤 친구가 저를 여기로 끌고 왔어요. 와보니까 친구들이 다 여기 있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매일 와요. 재미있으니까요. 과학도 재밌고, 비행기 만들기, 고무마 구워 먹기 전부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가득한 공간이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되게 아늑해요.



박고은
제주동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친구 소개로 몇 번 와봤어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이랑 노는 게 너무너무!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놀이가 진짜 신났어요. 상어 놀이 같은 거요. 무인도를 정하고 상어 역할을 정한 다음, 상어한테 안 잡히게 도망 다니는 놀이에요.



양화영
제주동초등학교 5학년

저는 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에 일곱 살 때부터 공부방에 왔어요. 학교에 다니는 언니들이 잘해줘서 좋더라고요. 입학한 다음에도 공부방 언니들이 있어서 든든했구요. 공부방에는 재밌는 게 많아서 참 좋아요. 특히 보드 게임!



김진아
제주동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공부방 포스터를 보고 다니고 싶어서 그냥 왔죠. 재밌어 보였거든요. 학교 끝나면 심심하고, 또 바로 집에 가서 공부해야 하니까 여기를 가보자 싶었어요. 와보니 새로운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 신나고 좋아요!

프로젝트 성공 노하우 카카오가 코치합니다

봄과 함께 Kakao 클래스가 돌아왔다. Kakao 클래스는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개인 창작자 및 단체들에게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오프라인 강의 프로그램이다. 2016년 카카오펀딩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동 기획으로 시작돼 3년간 전국 각 도시로 교육 범위를 넓혀왔다.

올해 제주의 첫 클래스는 '카카오 콘텐츠 플랫폼 스토리펀딩 & 브런치 작가가 되는 법'을 주제로 3월 22일부터 이틀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Kakao 클래스 수강 신청자는 사전 모집 기간에만 100여 명에 육박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21개 팀이 Kakao 클래스에 참여했다.

첫날은 아이스브레이킹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스토리펀딩'의 임희원 PD, '브런치'의 황명희 서비스 담당자가 '스토리펀딩 & 브런치의 성공적 활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 '제주의 검은 보물, 흑우를 담다' 프로젝트로 스토리펀딩에서 202%의 펀딩을 진행한 김민수 작가가 '브런치와 스토리펀딩을 활용하는 시너지 방법'을 소개했다.

둘째 날에는 프로젝트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서비스 담당자들이 예비 프로젝트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할 점과 강화할 점' 등을 중점적으로 멘토링했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점검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프로젝트 발표와 그에 대한 시상 이 진행됐다. 스토리펀딩 부문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젝트 '대안학교, 거기 뭐하는 데야?(신지우)'가 1위를 차지했고, 제주 굴꽃에서 추출한 꿀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젝트 '굴꽃꿀을 아시나요?(박소연)'와 제주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Let me be(현승준)', 제주 생태숲을 소개하는 '숲속을 걸어요(김소은)'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브런치 부분에서는 '서울 토박이의 좌충우돌 농촌 적응기(임주현)'가 1위를, 채식과 미니멀 라이프 등 축소주의를 실현하는 이야기를 담은 '축소주의(이보람)', 숲 드로잉과 숲 소개 프로젝트 '나의 숲 처방전(국영수)'이 각각 2, 3등을 차지했다.

카카오는 Kakao 클래스 참가자들이 보다 빠르게 프로젝트를 오픈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선정된 12편의 우수 프로젝트는 현재 전문 작가들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번 Kakao 클래스를 통해 발굴된 프로젝트들은 스토리펀딩과 브런치를 통해 5월 중으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진행된 'Kakao 클래스 시즌2-스토리펀딩 워크숍'을 거친 제주올레의 '올레길 10년의 꿈, 10년의 위로' 등 6개 프로젝트는 스토리펀딩에서 정식 오픈해 약 3000만 원의 펀딩을 이끌어냈다.

Kakao 클래스는 올해도 전국 곳곳을 찾아간다. 4월 25일에는 판교 ICT-문화융합센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Kakao 클래스가 열렸다. 주제는 '카카오 스토리펀딩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콘텐츠 마케팅'. ICT-문화융합센터 입주 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30여 명이 김귀현 카카오 스토리펀딩 파트장으로부터 직접 스토리펀딩 활용 노하우를 듣기 위해 모였다. 이번 클래스 덕분에

에 정희정 마티엘리펀트 대표는 사업에 스토리펀딩을 접목시킬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저희 회사는 어린이를 위한 사운드북을 만들고 있는데, 시제품이 출시되면 스토리펀딩을 꼭 이용해보아야겠어요."

다음 Kakao 클래스는 6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3월과 동일하게 '카카오 콘텐츠 플랫폼 스토리펀딩 & 브런치 작가가 되는 법'을 주제로 더 많은 파트너들을 찾아간다. ■

“거친 형태의 아이템이 멘토링을 통해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지고
빛을 낼 수 있게 됐어요.”

“높게 보였던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었어요.”



Kakao 클래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해
지금 학교는 만들기 공부 중
카카오미니, 일상 속으로 성큼

카카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통의 폭을 확장하는 기술의 힘,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정성과 교육 현장을
향한 따뜻한 지지가 모여 더욱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ith
kakao

모두를 위한 연결, 세 번째: 페이스톡

너의 목소리가 보여



천정우

청각장애 2급 농인으로 영상 콘텐츠 회사에서 한국수어영상도서를 만드는 촬영 총감독을 맡고 있다.

김수란

청각장애 2급 농인이자 천정우의 아내로 세 살배기 아들 육아에 전념하는 중이다. 중국 하얼빈 출신의 조선족이다.

김상화 농아사회정보원 원장

인터넷과 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농인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97년 농아사회정보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농인들의 정보화에 힘쓰고 있다.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농인(聾人)에게는 수화 언어가 제1언어다. 그들에게 음성과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한 기존 통신 서비스의 한계는 명확했다. 2015년 6월 카카오톡이 영상 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톡을 처음 선보였을 때 농인들이 이 소식을 누구보다 반가워했던 이유다. 영상통화로 사람의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통의 폭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연결’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에는 페이스톡이 청각장애 2급 농인인 천정우, 김수란 씨의 일상에 가져다준 변화를 담았다. 수화로 진행된 대화는 김상화 농아사회정보원 원장의 통역을 거쳤다.

천정우 씨(왼쪽)와 김수란 씨(가운데), 김상화 원장(오른쪽)이 함께 '카카오 페이스톡'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다.

- '수화'에 대한 오해 -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단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천정우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장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청인(聽人) 사회에서 자랐다면 음성 언어가 편해서 여전히 페이스북보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많이 써요.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죠.

김상화 두 단어는 접근법이 달라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청각장애인’은 법률 및 의학적, ‘농인’은 문화적 측면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열다섯 가지 장애 안에 포함된 청력 손실, 즉 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농인은 농사회에서 농문화를 체화하고 제1언어로 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에 가까워요. 오늘 인터뷰에 함께한 두 분도 농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수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세 분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화 농아사회정보원은 다양한 농인들과 여러 실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요. 곧 다가올 선거철을 맞아 수화형 선거 공보나 선거 벽보를 만드는 것처럼요. 정우 씨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수어영상도서를 만들면서 만났어요. 50명이 넘는 농인들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농인들이 직접 한국어를 한국 수어로 번역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외국 도서를 번역하듯이요. 정우 씨는 촬영과 편집을 총괄하고 있어요.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수화는 시각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표정도 상당히 풍부해요.

천정우 맞아요. 표정으로 전해지는 것이 많아요.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죠. 여기 제가 있고 원장님이 저쪽에 있으니까, 제가 저쪽을 가리키면 이게 ‘원장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김상화 수화 언어를 시각 및 동작 언어 체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름 철자를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농사회 구성원에게는 ‘얼굴 이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 명함에 손동작으로 표현한 얼굴 이름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청인들이 쓰는 언어와는 체계가 완전히 다르네요.

김상화 그렇죠. 수화 언어를 한국어 어순 그대로 옮긴 언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화와 한국어는 별개의 언어라 체계가 전혀 달라요. 농인은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죠. 또 수화 언어에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런 특징을 인지해야 농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ㄹ(문자해)’ 대신 ‘ㅋ(카톡해)’ -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천정우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버디버디’, ‘네이트온’ 같은 인터넷 메신저들도 많이 사용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입력하는 것은 수화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래도 제 언어가 아니니까요. 번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야 그 뜻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카카오톡이 생기고 어떤 점이 가장 편리해졌나요?

천정우 이모티콘이나 사진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어서 편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라고 하면 ‘밥 먹어’라고 답장하는 대신 밥 먹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요. 카톡에서는 문자와 달리 사진 보낼 때 비용 걱정이 없어서 참 좋아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기능이고요.

김수란 수화의 ‘문자해’라는 단어가 이제는 ‘카톡해’로 바뀌었어요. 수화에서 표현하기 힘든 말을 보충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것을 ‘지문자’라고 하는데, 지문자로 ‘ㅋ’을 만들어서 왼손 바닥 위로 속 보내면 ‘카톡해’라는 뜻이 돼요. 예전에는 손가락을 구부려 만든 ‘ㄹ’을 보내서 ‘문자해’라고 했어요. 지금은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쓰니까 쓰는 말도 바뀐 거예요.





- 일상에 스며든 페이스톡 -

스마트폰 이전부터 '영상 전화기'라는 것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주 사용하셨나요?

천정우 영상 전화기가 출시된 지도 20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농아인협회나 구청 같은 곳에 설치돼 있었고, 10년 전부터 가정에도 보급됐었어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었죠.

페이스톡 외의 영상통화 서비스도 이용하시나요?

천정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영상통화 서비스가 많이 생겼어요. 농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일반 영상통화 앱 중에 사용하기 편한 것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탕고(tango), IMO, 우브(oovoo) 같은 앱이요.

김수란 이런 앱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니까 외국의 농인들도 만날 수 있어요. 수화가 나라별로 다르니까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기도 하면서요. 저는 중국에서 왔는데 남편이랑 영상통화 앱으로 친해졌어요. 영상통화를 장시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톡이 끊김이 가장 적고 통화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천정우 보통 영상통화 앱은 설치한 사람끼리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톡을 내놓았을 때 참 반가웠어요. 카카오톡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니까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누구와도 편하게 통화할 수 있잖아요.

김수란 페이스톡이 출시되고 나서는 거의 페이스톡만 이용해요. 저희가 쓰는 수화로 카톡 보내는 것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페이스톡을 이용하시나요?

김수란 오늘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을 때도 원장님께 페이스톡을 걸어서 지금 있는 장소를 카메라로 보여드렸어요. 도착했다는 뜻으로요.

천정우 일할 때 많이 사용해요. 책의 내용을 수화로 번역해서 영상도서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화 모델과 연락해서 촬영 장소랑 시간을 정할 때 페이스톡을 자주 써요. 사실 수화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페이스톡을 할 일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가 수화를 잘 못 해도 페이스톡을 하면 얼굴 표정으로 어떤 감정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문자로 주고받을 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어도 얼굴을 보며 소통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난 4년 전에 아내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중국에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중국 농인들과 페이스톡으로 소통하면서 장사를 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청인들에게도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난처했어요. 결국 신용이 떨어져서 문을 닫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시다.

페이스톡이 만든 새로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김수란 '페이스톡해'라는 말도 생겼어요. '카톡해'를 의미하는 'ㅋ' 뒤에 손가락을 얼굴 앞에서 한 바퀴 돌리고, 양손의 손가락을 카메라처럼 마주보게 해요. 이게 영상통화라는 뜻이에요. 세 동작을 연결하면 '페이스톡해'가 되는 거예요.

김상화 청인에게 같은 내용을 전화로 전하는 것과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에 미묘한 차이가 있듯, 농인도 마찬가지예요. 음성통화 역할을 페이스톡이 하는 거죠. 덕분에 대화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상통화를 할 때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으면 수화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나요?

천정우 간단한 대화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한 손이더라도 대화 내용과 맥락을 통해 수화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 대화할 때는 휴대폰을 거치대 위에 세워놓고 두 손으로 수화를 하고요.

김상화 수화에도 언어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생략되어도 맥락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수화는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그 위에서 돌리는데, 이때 왼손의 주먹 없이 오른손 동작만 보고도 뜻을 알 수 있죠.



“상대가 수화를 잘 못 해도
페이스톡을 하면 얼굴 표정으로
어떤 감정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문자로 주고받을
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어도
얼굴을 보며 소통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영상통화를 주로 하다 보면
통신 요금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천정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요금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종류가 많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제한 LTE 요금제를 쓰자니 무료 제공 음성통화는 전혀 쓸모가 없고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고 있어요. 농인의 영상통화는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으니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 앞으로도 잘 부탁해 -

페이스톡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하시나요?

천정우 청인과 농인의 중계 서비스가 추가되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손말이음센터'라는 통신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로 피자를 주문하고 싶으면 여기에 연락해요. 컴퓨터 카메라로 연결하거나 페이스톡이 아닌 다른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서요. 제가 수화로 주문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중계사가 음성으로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예요. 페이스톡을 가장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으로도 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수란 카카오톡에서는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해요. 수화 동작을 그린 이모티콘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 페이스톡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보이스톡은 그룹 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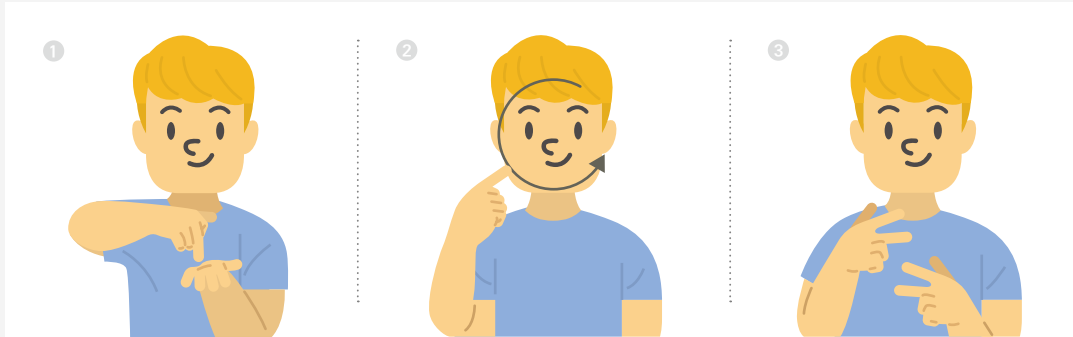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면 하시나요?**

천정우 이미 카카오톡 덕분에 저희의 일상이 예전에 비해 훨씬 편해졌어요. 페이스톡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의 택시 서비스도 저희에게 정말 고마운 기능이지요. 카카오톡 앱에서 목적지를 미리 설정해두면 되니까 기사님께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없거나 하기 불편한 것들을 카카오톡이 대신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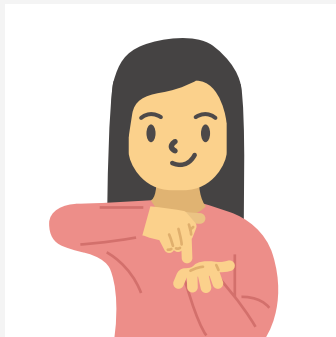
김수란 저희한테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직접 와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카카오톡 프렌즈 캐릭터를 좋아해서 함께 사진도 찍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페이스톡에서 수화로 감정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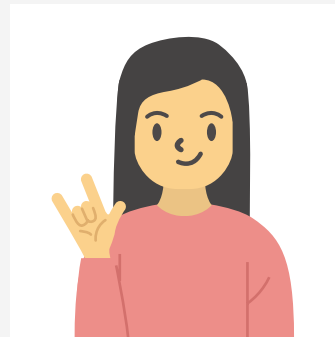
페이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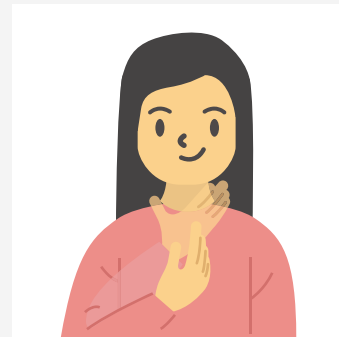
카카오톡



I Lov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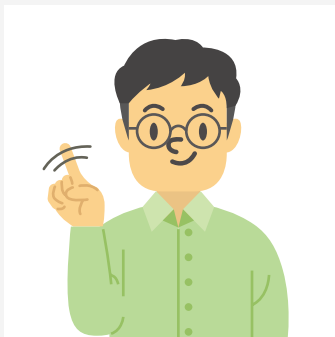
행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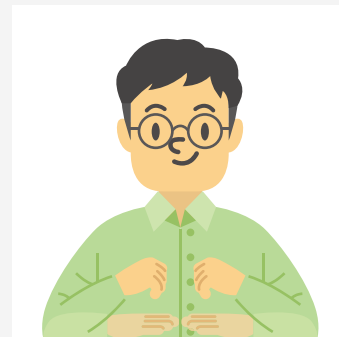
고마워



뭐해



배고파



Q&A 궁금해요, 페이스톡

Q. 페이스톡을 처음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누군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페이스톡을 만든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음성통화부터 시작해 영상통화까지 갖춰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 번에 실행하기는 무리였기에 순서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페이스톡 내의 여러 기능을 만들어내고 또 개선해나가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Q.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페이스톡이 걸려왔을 때 받기 버튼을 눌러도 바로 영상통화 화면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설정을 바꿀 수는 없나요?

A. 설정을 통해 예전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신 뒤 '통화'에서 'iPhone 통화 화면으로 보기'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Q. 페이스톡을 할 때 가끔 화면이 일그러지고 버퍼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끊김 현상이 발생하나요?

A.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이슈로 인해 통화 품질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이 안정적인 품질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끊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Q. 여러 사람이 함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 페이스톡 기능을 추가하실 계획은 없나요?

A. 그룹 채팅방에서 영상을 통해 더 재밌고 편리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희도 고민이 참 많아요. 주신 아이디어를 참고해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Q. 사용을 권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페이스톡을 하면서 너무 적나라한 화면에 놀라실 필요 없어요. 스티커 기능이나 필터 기능을 활용해 화면을 예쁘게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페이스톡 창을 최소화해놓고 채팅을 병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다. 자신의 생일,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모인 같이가치 with Kakao의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 '행복'

미래의 주인이 어린이라는 명제는 모든 사회에서 통한다. 전 세계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어린이날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목표만큼은 같다.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현재까지 196개국이 협약에 비준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행복을 느끼기 힘든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이 많다. 몸이 아프거나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어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같이가치의 어린이 지원 프로젝트〉

교육의 기회	건강한 식생활	심리 정서	예체능 활동	다양한 문화 생활
소외 아동	입양 아동	장애 아동	제 3세계 아동	학대 피해 아동

어린이와 같이가치

같이가치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의 프로젝트가 항상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같이가치를 찾아가보자. 아이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즐거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아이들의 작품으로 만든 특별한 달력

봉사단체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는 ‘생명을주는나무’에서 평소 봉사활동을 해왔다. 공동 육아 시설인 이곳에서는 미혼모, 조부모 및 한 부모 가정이거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간다. 자원봉사자들이 매달 이 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은 특히 미술 놀이를 가장 좋아하고 잘했다고 한다.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는 이 점에 착안해 아이들과 함께 달력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달력 제작에 쓰였다. 아이들과 함께 그린 미술 작품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담긴 달력이었다. 완성된 달력은 아이들의 생활 공간에 걸려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이 들어간 달력을 보면서 매우 뿌듯해했다. 남은 달력은 지역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아이들의 재능이 나눔으로 다시 이어진 것이다.

“행복을 주는 달력이네요 ^^
그림처럼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 jj7**

“아이들만큼 어여쁜 달력 기대할게요”
- cha**



민소가 꿈꾸던 기적 같은 입학식

민소는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간암 진단을 받았다. 큰 수술을 통해 간을 이식받았지만 그 뒤로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심장병을 앓았다. 이 병으로 민소는 한 달에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다. 이유식을 먹을 시기에 중환자실에 있었던 스트레스 때문인지 민소는 음식을 거부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밥을 먹지 않았다. 특수 분유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민소의 키는 다른 친구들보다 20cm 정도 작다.

일곱 살이 되도록 집보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던 민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심장이식 수술, 정신과 치료 및 특수 분유 비용으로 사용됐다. 다행히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인 덕분에 민소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다른 음식에도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얼마 전 민소가 무사히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직 친구들만큼 건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민소의 건강이 좋아진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민소는 화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자기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다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 민소 어머니가 보내온 감사 편지



직접 만든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

서울 강북구 송천동지역아동센터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뒤에도 가정 형편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머무는 공부방이다. 이 센터 프로그램 중에는 ‘합창 수업’도 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 대중가요를 쉽게 접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가사를 흥얼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다움’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선생님들이 마련한 수업이다. 합창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직접 동요를 만들어 부른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 씨앗의 꿈 (작사/곡 민경찬)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6년 만든 합창단 이름은 ‘소나무(소중한 우리들의 꿈나무)’. 소나무 합창단 공연을 무대에서 선보이기 위해 선생님들은 같이가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은 돈으로 아이들의 합창복과 구두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아이들은 예쁜 단복을 맞춰 입고 무대에 올라 기쁘게 노래할 수 있었다. 꿈과 희망, 동심이 담긴 노랫말에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다.



안전한 놀이터로 돌아온 아이들

경기 부천시 구도심에 위치한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던 복지관 담당자들의 눈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으로 둘러싸인 어린이공원의 놀이터가 들어왔다. 뛰놀아야 할 어린이들은 학원에 가고 없는 놀이터에, 벤치에 모여 술 한잔하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어울릴거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복지관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가지에서 진행했다. 이름은 ‘콩알 놀이터’. ‘콩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의 성원으로 모인 모금액으로 복지관은 아이들의 간식비, 놀이 도구 비용을 충당했다.

완성된 놀이터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콩알들의 웃음소리로 북작거렸다. 보물찾기, 신발 멀리 던지기, 얼음땀 놀이, 경찰과 도둑 등 아이들에게 잊었던 재미있는 놀이들이 진행됐다.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신나게 놀면서 아이들의 행복이 한 뼘 더 커질 수 있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음 편한 놀이터 부탁드립니다”
- sea**

“신나는 놀이터 만들어주세요^^ 응원합니다”
- wp1**

지금 학교는 만들기 공부 중

우리 모두는 한때 '메이커(Maker)'였다.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상상 속의 크고 작은 놀잇감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일상이자, 만들기를 통한 학습 과정이었다. '메이커 운동'과 '메이커 교육'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는 메이커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2015년부터 교육 스타트업 '메이커스'와 함께 학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3년의 발자취

카카오는 2015년 부터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메이커 교육 세미나, 3D 프린팅 교사 워크숍, 학교 3D 프린터 지원, 우수 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지금까지 총 757명의 교사가 메이커 교육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120명을 모집하는 메이커 교육 교사 워크숍에 무려 1342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첫째 60명을 모집하는 워크숍에 80여 명이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메이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알 수 있다.

“메이커 운동이란 뭘까?”

“학교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 걸까?”

매년 봄 진행해온 '학교 메이커 교육 세미나'는 학생들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선생님들의 질문에 영감을 전해주고, 메이커 교육의 개념과 철학,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로 자리매김했다. 이 세미나에는 매년 메이커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메이커 교육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다음 과정은 바로 3D 프린팅 교사 워크숍이다. 3D 프린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 워크숍은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이후 광주, 부산, 제주까지 퍼졌다. 매년 120여 명의 선생님들이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을 배우고 이 기술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인다.



카카오가 선정한 3D 프린터

카카오는 워크숍을 수료한 교사들에게 매년 카카오의 3D 프린터 지원사업에 신청할 기회를 제공한다. 3D 프린터 활용 계획안과 워크숍 참여도를 바탕으로 지원할 학교를 선정해, 지난 3년 동안 초·중·고 및 대안·특수학교 55곳에 3D 프린터를 1대씩 지원했다. 매년 12월에는 활용 사례 공모전을 진행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육 현장에 메이커 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주를

경기 의왕시 덕장중학교는 2016년 3D 프린터를 지원받은 후 학생들이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우선 3D 모델링을 통해 각자의 자동차를 디자인했다. 창의적일 뿐 아니라 공기역학 등을 고려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완성한 모델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도색하면 미니카가 완성된다. 학생들은 이 미니카로 자동차 경주까지 하는 값진 경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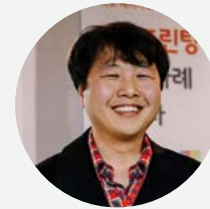


특수학교 맞춤형 교구도 똑딱

메이커 교육은 특수학교에서도 유용하다. 2017년 3D 프린터를 지원받은 경남 양산시 양산희망학교가 맞춤형 교구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양산희망학교는 소근육(손가락) 운동에 어려움이 있어 칠교놀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막대기가 있는 맞춤형 칠교놀이 세트를 만들었다. 메이킹의 교육 효과가 학습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카카오의 지원도 계속될 것이다. ■



메이커 교육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대송
양산희망학교 선생님

학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연히 메이커 교육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메이커 교육은 장애 학생들과 특수 교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갖게 됐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3D 프린터를 지원받고, 또 최우수 사례 공모전에서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카카오 3D 프린터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할 때만 해도 “특수학교에 3D 프린터를 줄까?” 하는 의구심과 “일반 학생들도 어려운데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해?” 하시는 주위의 걱정 때문에 의기소침했어요. 막상 3D 프린터를 지원받고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니 걱정과 우려는 사라졌죠.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무엇보다 기뻐요.

진행하신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3D 프린터를 이용해 장애 학생 맞춤형 교구인 막대가 달린 칠교놀이 세트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실물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뇌성마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필기 보조기구와 태블릿 PC 터치 보조기구도 만들었죠. 그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교육을 실시해 열쇠고리 만들기도 해봤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3D 프린터로 직접 만든 열쇠고리를 들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무척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 많아졌고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보려는 열정과 의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메이킹을 통해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올해는 직업 교과와 연계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요. 리소페인 액자나 열쇠고리, 홍상 피규어 등 상품화할 수 있는 제품을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뒤 교내에서 가상으로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거죠. 또 팝아트 제작(미술)과 3D 펜을 활용한 글자 익히기(국어) 등 다양한 교과 수업에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수학 수업에 필요한 장애 학생 맞춤형 교구도 계속 제작하고 싶습니다.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현장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카카오미니, 일상 속으로 성큼

대롱대롱 매달린 라이언과 어피치, 똑 소리 나는 다양한 기능. 카카오의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미니(Kakao Mini)’는 지난해 9월 예약 판매와 11월 정식 발매에서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판매된 미니는 10만 대를 넘어섰다.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카카오미니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데이터로 구성



카카오미니의
다양한 활용법이 궁금하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카카오미니, 너의 이름

카카오미니를 깨울 수 있는 호출명령어는 네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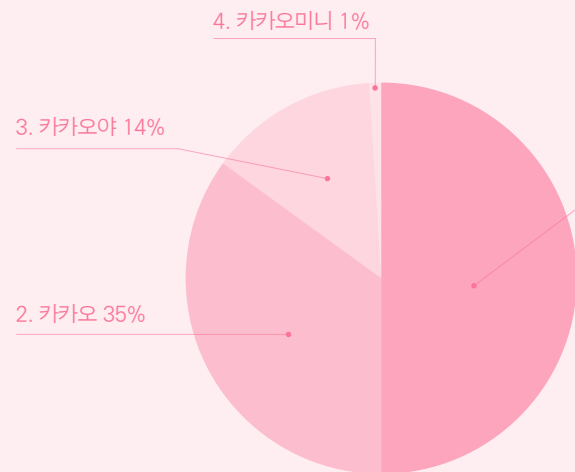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건

‘헤이카카오’. 기기 설정의 초기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출명령어다.

가장 많이 사용한 카카오미니 호출명령어

헤이카카오

50%



카카오미니와 함께하는 하루

전원이 연결된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할 때 카카오미니의
주간 사용률은 90% 이상이다. 주중 사용률은 하루가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증가해 오전 8시에 정점에
이른다. 이후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사용률은 저녁 시간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전반적으로 주말에 사용률이 더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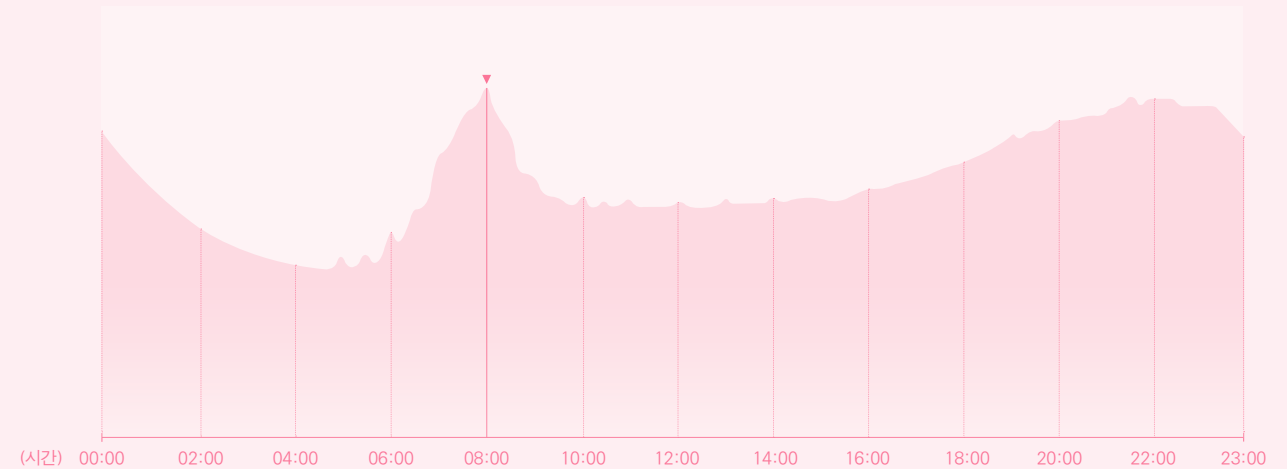
카카오미니 주간 사용률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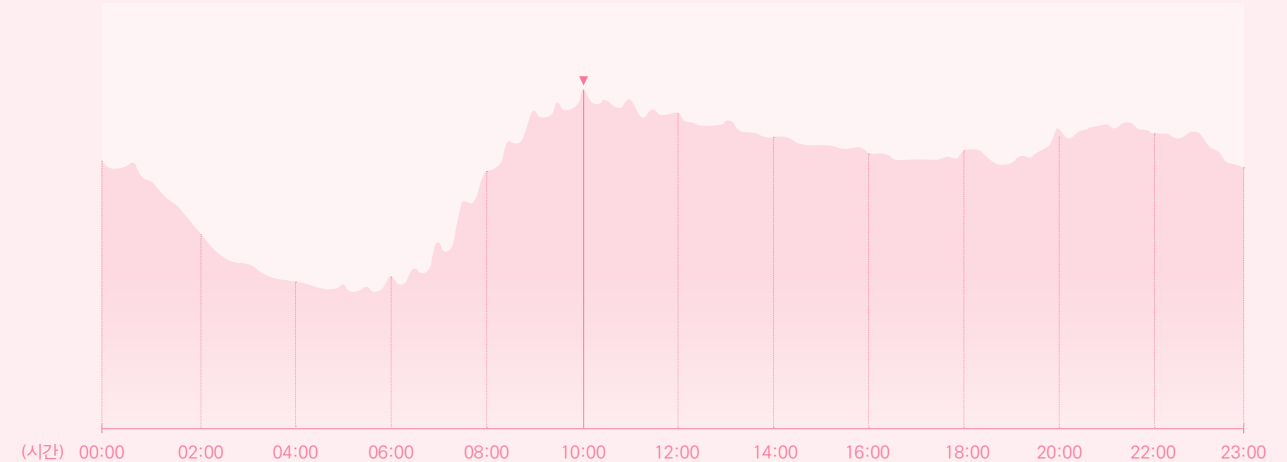
평일 피크타임

08:00^{AM}

평일 시간대별 사용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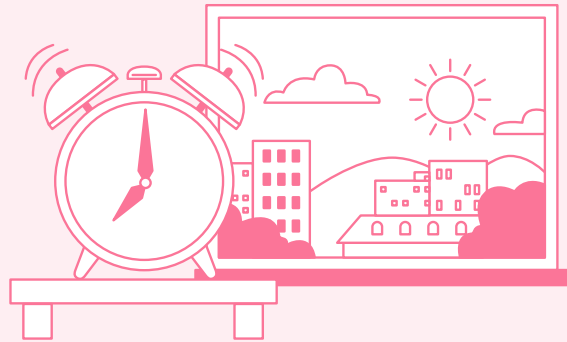


주말 시간대별 사용 건수 추이



카카오미니가 여는 아침

카카오미니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7시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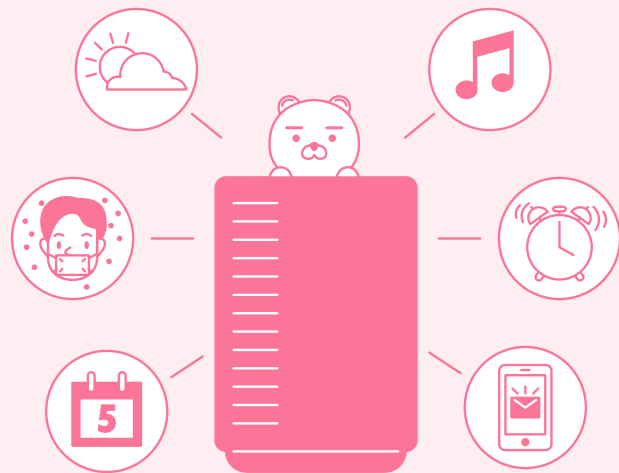


아침 알람으로 가장 많이 설정한 시간대

1. 오전 07:00
2. 오전 08:00
3. 오전 07:30
4. 오전 09:00
5. 오전 08:30

팔방미인 카카오미니

날씨와 뉴스 확인부터 음악 재생, 카카오톡 전송, 일정 관리, 택시 호출, 콘텐츠 추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카카오미니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그중 사용자들이 가장 즐겨 쓴 기능은 멜론과 연동한 음악 재생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한 기능

1. 음악 재생
2. 날씨 정보
3. 알람 설정
4. 미세먼지 정보
5. 시간 정보

가장 많이 이용한 명령어

1. 지금 몇 시야
2. 노래 틀어줘
3. 오늘 날씨 알려줘
4. 미세먼지 어때
5. 라디오 틀어줘

카카오미니, 생활에 음악을 더하다

카카오미니로 아이유, 방탄소년단, 모모랜드, 장덕철, 트와이스, iKON, 워너원, 멜로망스의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인기 가수들 사이에서 동요 '상어 가족'을 부른 핑크퐁의 약진이 돋보인다. 동요는 가장 많이 재생된 장르로 꼽혔다.



곡이 가장 많이 재생된 아티스트

1. 아이유
2. 방탄소년단
3. 핑크퐁

가장 많이 재생된 곡

1. 모모랜드 - 뽀뽀
2. 핑크퐁 - 상어 가족
3. 장덕철 - 그날처럼

가장 많이 재생된 장르

1. 동요
2. 자장가
3. 팝송

가장 많이 재생된 음악 테마

1. 신나는
2. 조용한
3. 잔잔한

아이를 위한 카카오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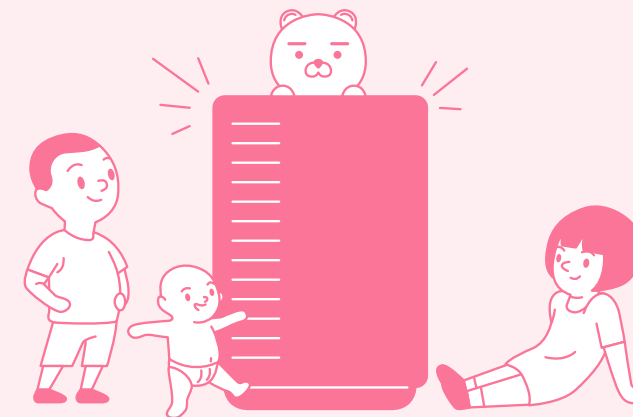
동요의 선풍적인 인기로 카카오미니가 어린이들의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분석해보니 핑크퐁 외에도 뽀통령 '뽀로로'의 건재함이 돋보였다. 아이들이 가장 즐겨 들은 동화는 '백설공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재생된 동요

1. 핑크퐁 곡
2. 뽀로로 관련 곡
3. 나비야
4. 작은 별
5. 정글북 관련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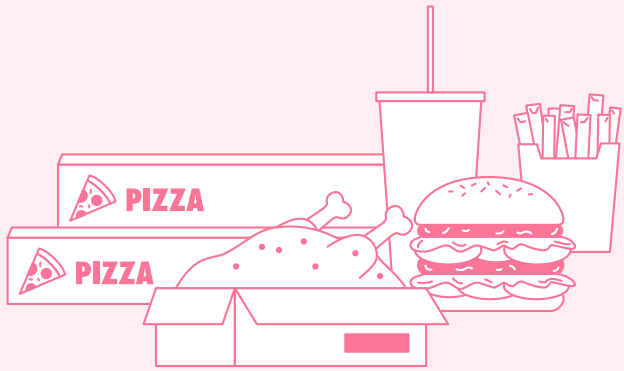
가장 많이 재생된 동화

1. 백설공주
2. 미녀와 야수
3. 신데렐라
4. 정글북
5. 인어공주



허기를 달래주는 카카오키니

2018년 1월 30일부터 카카오키니 주문하기 서비스가 카카오키니에 추가됐다. 카카오키니로 가장 많이 주문한 음식은 치킨이었다.



가장 많이 주문한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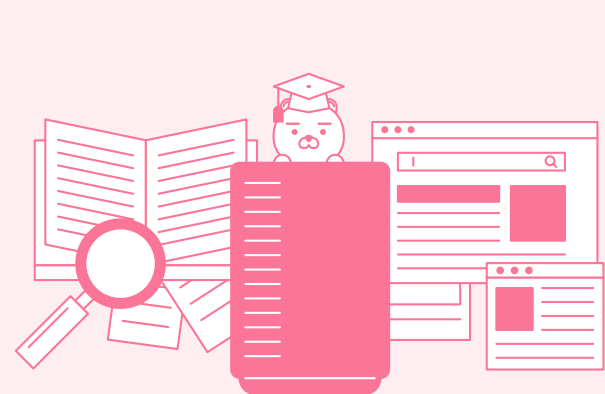
1. 치킨
2. 피자
3. 햄버거
4. 야식
5. 한식

가장 많이 주문한 브랜드

1. 피자헛
2. BHC
3. BBQ
4. 굽네치킨
5. 미스터피자

척척박사 카카오키니

어학·사전 기능도 2018년 1월 30일 업데이트됐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점입가경'의 의미와 '냉장고'의 영어 표현이었다.



가장 많이 질문한 한국어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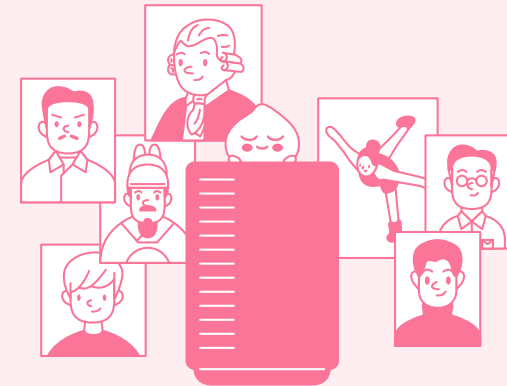
1. 점입가경
2. AI
3. 근하신년
4. 개기월식
5. ASMR

가장 많이 질문한 영어 단어

1. 냉장고
2. 사과
3. 육교
4. 다다익선
5. 공통

헤이카카오, 너 이 사람 알아?

카카오키니를 통한 인물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가수 강다니엘, 배우 박보검, 스포츠 스타 김연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국내 위인 중에서는 세종대왕, 해외 위인 가운데서는 베토벤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가장 많이 질문한 가수

1. 강다니엘
2. 아이유
3. 윤종신

가장 많이 질문한 배우

1. 박보검
2. 추자현
3. 송혜교

가장 많이 질문한 스포츠 스타

1. 김연아
2. 손흥민
3. 리오넬 메시

가장 많이 질문한 국내 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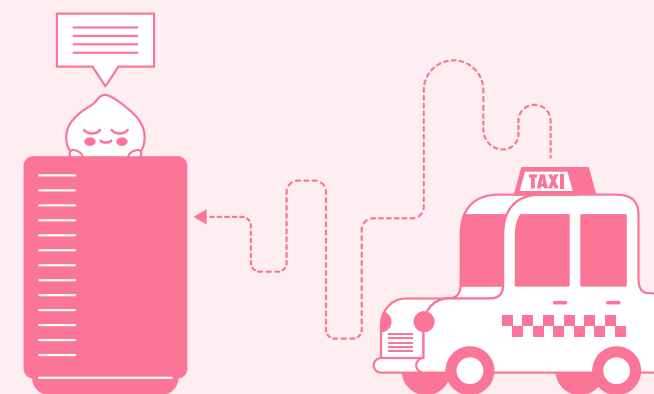
1. 세종대왕
2. 안중근
3. 유관순

가장 많이 질문한 해외 위인

1. 베토벤
2. 아인슈타인
3. 모차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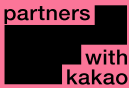
헤이카카오, 택시 불러줘!

2018년 2월 8일에는 카카오키니의 택시 호출 기능이 카카오키니에 추가됐다. 사용자들이 가장 즐겨 찾은 목적지는 강남역이었다.



가장 많이 지정한 택시 목적지

1. 강남역
2. 경희대학교 병원
3. 서울역
4. 화정역
5. 수원역



Partners with Kakao

2018년 5월호 (vol.6)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발행처 (주)카카오

발행인 여민수 조수용

편집인 양현서

편집장 전수민

편집 김대원 강연주 김태완 박진석 박지혜

임미숙 육심나 이경은 이재승 최승찬

디자인 디렉션 카카오 브랜드랩

디자인 김재현 한재국

외주 글 이혜승

외주 사진 김진솔

2017년 12월 15일 창간

브런치 주소 brunch.co.kr/@partnerswkakao

메일 partners.with@kakaocorp.com

본 Partners with Kakao의 판권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소유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Partners with Kakao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에서 Partners with Kakao를 이용·가공·인용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근두근 미스터리 봉사여행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가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에게 꼭 맞는 봉사를 향해 달려가는 직행 버스,

‘어떤버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너의 이름은’, ‘고백의 날’,

‘에너자이저’... 힌트를 보고 마음에 드는 버스에 올라타세요.

버스가 출발한 뒤 오늘의 봉사 내용을 알려드리는 미스터리

봉사활동 어떤버스입니다.

어떤버스는 봉사의 문턱을 낮추고 즐거운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2016년 가을부터는 같이가치 with Kakao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리 탑승 신청을 한 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20명이 한 조가 되어 나무 심기, 벽화

그리기, 유기견센터 등 그날의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00여 곳에서 봉사를 했어요. 여섯 번의 정규 시즌과 다섯 번의

미니 시즌을 거쳐, 일곱 번째 정규 시즌을 맞이합니다.

어떤버스 시즌7 ‘어떤 여름날’은 5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잠실 자동차극장에서 진행됩니다. 1650명의 봉사자가 버스 75대로

움직입니다. 봉사자는 100% 랜덤으로 추첨해요. 지금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탑승 신청을 하세요.



미스터리 봉사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